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생태여성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주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강 복 희

2016년 2월

# 생태여성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도교수 윤 용 택

강 복 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2월

강복희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6년 2월

# A Critical Study of Ecofeminism

Kang, Bok Hee

(supervised by Professor Yoon, Yong Tae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Arts

2016. 2.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론 .....	1
II. 여성주의에서 본 지구환경위기 .....	5
1. 가부장제 사회와 성 .....	5
1) 여성주의 인식론 .....	5
2) 가부장제의 지배논리 .....	7
3)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 지배문화 .....	10
2.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비판 .....	12
1) 생산과 소비의 분리 .....	12
2) 여성의 식민화 .....	14
3)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 .....	17
3. 근대과학기술 비판 .....	19
1) 환원주의 인식론의 한계 .....	19
2) 생명공학기술의 반환경성 .....	20
3) 생물다양성의 상실 .....	21
III. 생태여성주의에서 본 생태철학 .....	24
1. 초기 생태여성주의 .....	24
1) 생태여성주의 태동 .....	24

2) 본질적 생태여성주의 .....	26
3) 문화적 생태여성주의 .....	28
2. 근본적 생태철학의 한계 .....	31
1) 사회생태주의의 한계 .....	31
2) 심층생태주의의 한계 .....	34
3) 초기 생태여성주의 비판 .....	39
3. 생태여성주의의 진전 .....	42
1) 사회적 생태여성주의 .....	42
2) 새로운 생태여성주의 .....	45
3) 생태여성주의 환경윤리 .....	49
IV. 생태여성주의의 의의 .....	52
1. 여성학의 이론적 확장 .....	52
1) 여성주의 연구방법론 .....	52
2) ‘여성성’의 재해석 .....	54
3) 자기결정의 모순 제기 .....	57
2. 여성주의 실천 방향 제시 .....	60
1) 생태적 삶의 실천 방법 .....	60
2) 생태적 삶의 실천 사례 .....	62
3) 생태적 평화공동체 .....	64
3. 환경문제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 도입 .....	67
1) 여성의 모임과 의식화 .....	67
2) 여신의 은유와 상징성 부활 .....	70
3) 지구공동체 연결을 위한 의사소통 .....	73

V. 결 론 .....	76
참고문헌 .....	80
Abstract .....	83

## I. 서론

신자유주의는 사람들을 치열한 경쟁사회 속으로 몰아세우며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부추긴다. 거기에 영합한 과학기술은 순환 재생되는 대지의 생명줄을 끊어놓고 인간관계를 철저히 단절시키며 제3세계 여성과 아동을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성장을 미덕으로 강조하며 끝없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고,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원을 빼앗고, 국가는 국익을 내세워 무분별한 개발을 하도록 방조하고 있다. 이들은 오래된 여성들이 경험에서 터득한 지혜들을 무지한 것으로 치부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결합한 생명공학기술은 여성의 몸과 생식능력을 ‘새로운 투자영역’과 이윤창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세계적인 자본주의 시장체제는 자연과 여성을 착취하면서 끝없는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런 흐름에 휩쓸려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말하지 않는 채 거기에 편승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산성비, 열대림 파괴, 오존층 파괴,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고, 생태계의 그물망은 점점 느슨해지며 매년 수많은 생명종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더 이상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인 문제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구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회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미 자본중심적 사회는 따라잡기식 소비풍조가 만연해 있고, 기업은 온갖 전략을 동원하여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지구환경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지금 너나없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을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인류가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는 데에 방조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감지한 사람들은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끊어진 생명의 그물을 연결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가와 생태주의자들이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지구에 대안적인 삶을 가져올 새로운 시각에서의 철학과 현실적 실천들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의 환경위기가 과학기술과 남성지배문화에 바탕을 둔 착취와 파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한 철학으로 생태여성주의에 주목하려 한다.

생태여성주의의 기저에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주의 운동이 있다. 생태여성주의는 자유주의 여성주의의 좌절, 인간중심의 산업주의에 대한 심층생태주의의 비판, 경제적 제국주의에 대한 제3세계의 비판, 반핵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은 폭력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단지 그 형태와 구조가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바뀌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197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의 출산정책 표어가 2014년에는 “둘이라서 둘이 좋다”라는 말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는 남녀차별이 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만 다루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들은 조용히 가사노동과 출산에 파업을 감행하며 저항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더 이상 오랜 역사를 지닌 가부장제의 철통장벽 속에 갇혀 수동적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는 1974년 드본느(Francoise d'Eaubonne)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지금까지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생태여성주의는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를 결합한 것으로, 여성주의 입장에서 생태문제를 바라보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생태여성주의는 지구환경문제가 사회학적 성(gender)의 문제와 더불어 계급, 인종, 나이 등의 문제들과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생태여성주의는 여성과 자연의 중층적 연관성을 조명하기 위해 다양한 담론들을 제기할 것을 뿐만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이 다국적 기업과 자본에 의한 제3세계의 착취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자연, 여성, 제3세계의 식민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해 왔다.

생태여성주의는 재앙에 가까운 기후변화와 환경파괴가 지구를 위협하는 현재, 생존방식이 각양각색인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다양한 생물종을 추구하며 상황과

맥락에 따른 적응적인 자급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관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연과 여성에 대한 착취와 테러로 생산, 재생, 순환하는 자연의 순리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자본주의 가부장제와 생태위기의 상호 연관된 역동성을 찾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태여성주의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생태여성주의는 환경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내·외부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여성들의 옛 지혜를 되짚어가며 대안적 삶의 철학과 환경운동의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II장에서는 지구환경의 총체적 위기의 주요한 원인이 가부장제의 지배논리와 과학기술의 반환경성임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여성주의 인식론적 접근을 통해 억압의 중요한 기제가 남성의 권력이 작용하는 정치학의 영역임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에는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를 공고히 지키기 위해 소비와 생산의 분리전략, 여성의 식민화, 인종주의, 성차별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근대과학기술과 자본이 결합하여 거대자본시장으로 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의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생명공학기술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과 자연의 재생과 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키면서 지구생명체의 그물망을 파괴하는 것이다.

III장에서는 생태여성주의 입장에서 근본적 생태철학(radical ecophilosophy)을 살펴볼 것이다. 생태여성주의는 사회생태주의, 심층생태주의와 함께 근본적 생태철학에 속한다. 여성주의 운동에서 출발한 생태여성주의는 다른 생태철학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이 논문에서는 생태여성주의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초기 생태여성주의를 이끈 본질적 생태여성주의와 문화적 생태여성주의의 운동적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생태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생태주의, 심층생태주의의 한계를 지적해 볼 것이다. 그와 더불어 초기 생태여성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사회적 생태여성주의로 나아가 보고자 한다. 그리고 생태여성주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생태여성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지금의 지구적 문제는 여성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제3세계의 식민화 현상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태여성주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지구생명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성주의 환경윤리로서 도덕성을 회복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그동안 생태철학에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노력해온 생태여성주의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생태여성주의는 여성주의 운동에서 출발하였으며,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시각으로 여성주의 관점을 확장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 이론의 확장을 위해 가부장문화에서 형성된 담론들 중에서 ‘여성성’에 대한 재해석과 여성해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결정권’이 자본주의 가부장사회에서 어떻게 역이용되어 왔는지를 지적할 것이다. 그 작업은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생태여성주의는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해 대안 정치, 경제적 관점으로 자급적(subsistence) 삶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구생태계의 다양성과 생태적 평화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자급적,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여성들의 사례들을 참고해 보고자 한다.

생태여성주의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여성들의 경험 속에서 체득한 것들이다. 지금의 총체적인 지구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옛 지혜를 빌릴 필요가 있다. 여성주의 윤리를 토대한 여성운동은 여성들의 모임(circle)을 통한 의식화운동이 지속되어왔으며, 더불어 여신의 은유와 상징적 의미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운동도 펼쳐왔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주의적 접근의 생태여성주의 운동이 지구환경과 사회문제를 치유하는 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찰할 것이다.

## Ⅱ. 여성주의에서 본 지구환경위기

### 1. 가부장제 사회와 성

#### 1) 여성주의 인식론

21세기 사회는 과학 안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서구나 제3세계 모두 동일한 조건 안에 놓여있다. 그러나 과학지식은 지배세력들의 통제로 인하여 다양한 배경(인종, 계급, 지역, 성별, 성적 배경 등)에서 비롯된 관점들이 배제되고 있다.<sup>1)</sup> 반면에 전통적인 인식론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인식론은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가부장제(patriarchy) 사회에서 어떻게 성을 위계화하고 여성들을 착취해 왔는지를 밝혀왔다.

여성주의 담론에서 성(性)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산물로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언급하는 사회학적 성(gender)으로 구분된다. 여성주의 인식론은 ‘사회학적 성’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을 연구하며, 남성 권력이 여성 억압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 정치학의 영역을 드러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sup>2)</sup>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여성주의 관점이 자신들의 목표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sup>3)</sup>

성(性)을 이유로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을 성차별이나 성불평등이라고 한다. 성불평등은 계급 불평등, 인종차별과 함께 인류 사회의 대표적인 불평등이다. 그러나 가부장제하의 성불평등은 단순히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아니며, 이러한 체계가 생산해내는 남성들의 불평등과 억압을 포함하는 모든 억압체계에 대한 것이

1) 하딩, 샌드라, 『누구의 과학이고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 옮김, 나남, 2010, 15쪽.

2) 채겨, 엘리슨 M. 외, 『여성주의 철학 1』, 한국여성철학회 옮김, 2005, 403쪽.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의미’와 ‘사회학적 의미’로 쓰인다. 이 논문에서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사회학적 성(gender)’을 지칭한다.

3) 하딩, 샌드라, 『누구의 과학이고 누구의 지식인가』, 167쪽.

기도 하다. 이러한 남녀 간의 불균형한 관계가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체계를 가부장제적 사회관습 또는 사회체계라고 할 수 있다.<sup>4)</sup> 바꿔 말하면 사회학적 성(gender)의 위계화 된 사회구조 속에서 생물학적 남성이 사회적으로 여성화 되고, 생물학적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여성, 남성 모두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gender)적 불평등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을 가로질러서 계층화하여 억압한다.

여성주의 인식론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들의 성역할 변화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제거(Alison Jaggar)에 따르면 “가변적인 사회적 실천들이 신체의 변화를 초래한다.”<sup>5)</sup> 사회학적 성(gender) 차이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성적인 억압이 다를 수 있고, 인종, 계급, 성적 지향, 성적 경험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받는 억압의 정도는 달라진다.

여성주의 인식론은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생물학적 성(sex) 차이가 사회학적 성(gender)의 억압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학적 성(gender)은 두 가지 의미로 ‘구성된다.’ 하나는 성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의미가 각인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의미가 원래 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향해 열려 있다는 뜻이다.<sup>6)</sup> 사회학적 성(gender)은 여성과 남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이들에 대한 의미를 입증하는 방식이다. 이는 생물학적 성(sex)의 구분조차도 사회적으로 구성되었고, 사회적 관습만큼이나 가변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여성주의 인식론은 크게 입장론과 경험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입장론 연구자는 자신의 주관성을 연구에서 배제해온 기존 학문의 객관성 개념에 대해 회의적이다. 입장론자들은 모든 학문연구에서 주변화 되거나 억압받는 집단의 입장에

4) (사)한국여성연구소 지음, 『새 여성학 강의』, 동녘, 2009, 24쪽.

5) 제거, 앨리슨 M. 외, 『여성주의 철학 1』, 404쪽. 가변적인 사회적 실천들은 여성들의 외형적인 육체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들 체내의 생물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실천들은 그들의 발생적인 자질들에서의 변화를 포함한다.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는 체구가 작은 여성들을 문화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재생산의 목적들을 위해 그러한 여성들을 더 우월하게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6) (사)한국여성연구소 지음, 『새 여성학 강의』, 96쪽.

있던 여성들이 이 사회와 세계를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인식론적 특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험론자들은 남성의 경험을 인간 전체의 경험으로 보고 여성의 경험을 배제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여성의 경험을 포함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sup>7)</sup> 기존의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성주의 인식론적 접근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주의 경험론은 인식주체의 사회적 정체성이 인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들은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주장이 사회적 편견과 선입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여성주의 입장론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생산된 지식이나 기술은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억압당하는 쪽이 보다 정확한 관점을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했던 여성의 경험을 통해 끝없는 개발논리로 드러나는 남성 중심적인 편견을 극복하고자 한다.

여성주의 인식론은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이 정치적인 문제이고 권력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여성주의 인식론은 가부장적 지배체제에서 남성, 여성, 자연이 어떻게 위계화 되어 착취당하거나 파괴되어 왔는지, 그리고 생물학적인 성(sex)과 사회학적 성(gender)이 서로 연결되어 진화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2) 가부장제의 지배논리

가부장제(patriarchy)라는 용어는 여성의 억압과 착취의 역사적·사회적 측면을 나타내준다. 그리핀(Susan Griffin), 머천트(Carolyn Merchant), 미즈(Maria Mies)등 많은 학자들은 가부장제가 오랜 역사 속에서 여성과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sup>8)</sup>

가부장제의 지배논리(logic of domination)는 여성과 자연을 같은 맥락에 놓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가부장적 체제에서는 여성과 자연의 재생산성을 연합시켜 성적 역할을 규정하며, 남성보다 여성과 자연을 낮게 평가한다.<sup>9)</sup> 가부장제

7) (사)한국여성연구소 지음, 『새 여성학 강의』, 25쪽.

8) Griffin, Susan, *Woman and Nature: the Roaring Inside Her*, Sierra Club Books, 1978, 10-11쪽; 머천트, 케를린, 『자연의 죽음』, 진규찬 외 옮김, 미토, 2005, 27쪽; 미즈, 마리아 외, 『에코페미니즘』, 손덕수·이난아 옮김, 창작과비평사, 2000, 26쪽.

의 지배논리는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을 나누지만 사실 그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것으로 한쪽은 우월하고 다른 한쪽은 열등한 상태를 만들어내어 이에 따른 복종을 정당화하는 억압의 개념적 틀에 있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가 도덕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도덕적 배려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덕적 배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 (1)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공동체를 의식적으로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바위와 식물은 그렇지 않다.
- (2)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는 그렇지 않은 존재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 (3) 그러므로 인간은 식물과 바위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 (4) X와 Y가 있을 때 만약 X가 Y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면, X가 Y를 지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5) 따라서 인간은 식물과 바위를 지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sup>10)</sup>

(2)와 (4)의 전제가 없으면 차이와 우월성이라는 것도 그다지 의미 없기 때문에 (4)의 지배논리야말로 생태여성주의자들의 비판적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여성과 자연을 겹으로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억압적 개념의 틀이 바로 가부장제라고 주장한다. 여성도 인간이고, 자유의지를 가진 게 분명하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의 자유의지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의 틀은 다음과 같은 논증으로 이어진다.

- (1) 비인간적인 자연은 물리적인 것으로 그것은 문화와 정신적인 것보다 열등한 것이다.
- (2) 여성은 비인간적인 자연과 동일하고 육체적이다. 반면에 지배하는 인간(남성)은 문화와 정신적인 것과 동일하다.
- (2) 여성들은 인간(남성)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하다.

9) 김성은, 『생태학적 여성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2, 57-58쪽.

10) Zimmerman, Michel E. ed., *Environmental Philosophy: from animal rights to radical ecology*, Prentice Hall, 2005, 258쪽.

- (4) X와 Y가 있을 때 만약 X가 Y보다 우월하다면 X가 Y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5) 따라서 인간(남성)이 비인간적인 자연과 여성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sup>11)</sup>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여기서 (5)의 논리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보았다. (5)는 (1)의 가치이원주의, (2)의 가치위계주의, (4)의 지배논리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생태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제의 지배논리가 역사적으로 가부장제 틀에서 작동해왔다고 본다. 따라서 생태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가부장제를 뒷받침하는 위와 같은 논리체계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비판은 자연에 대한 지배에 관해서도 가능하다. 여성억압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여성운동과 자연지배주의의 종식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 (1) 여성주의는 성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2)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수적인 서구사회에서 성차별주의는 억압적 개념의 틀인 관행, 정책, 구조를 통해서 개념적으로 지배논리를 “정당화”하는 인종주의, 종차별주의, 자연지배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3)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수적인 서구사회에서 여성주의는 억압적 개념의 틀인 정책, 관행, 구조를 통해서 개념적으로 지배논리를 “정당화”하는 인종주의, 종차별주의, 자연지배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운동이다.<sup>12)</sup>

가부장제 지배논리는 가부장적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뿐만 아니라 인종주의, 종차별주의, 자연지배주의를 통해 지배와 착취를 공고히 하기 위해 억압적 개념의 틀을 만들어 왔다. 가부장제 사회의 전 문화적 프로젝트가 남성적 팽창이념에 고정되어 있다<sup>13)</sup>는 것이다. 가부장제 지배논리는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역사적 구성물이며, 문화와 역사의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변화 가능한 것이다. 가부장제 지배논리는 지배체제의 필요에 따라 재구성되고 변화해왔고, 반대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바뀔 수도 있다.

11) Zimmerman, Michel E. ed., 위의 책, 259쪽 참조.  
 12) Zimmerman, Michel E. ed., 위의 책, 263쪽 참조.  
 13) 문순홍 지음,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2006, 162쪽.



### 3)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 지배문화

오늘날 가부장제는 아버지의 지배를 넘어, 남편, 상사, 대다수 사회 기구와 정치경제 영역에서 군림하는 자들의 지배를 말한다. 짐부타스(Marija Gimbutas)의 연구에 따르면, 가부장제의 역사는 약 5~6천 년 전에 흑해 북쪽의 중앙아시아 대초원 지대에 살았던 부족 사이에서 등장했다. 쿠르간(Kurgan) 부족의 남성들은 전쟁과 다른 부족 영토의 정복을 통해 부의 원천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힘은 우월한 지능이나 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폭력과 공격에서 나온 것으로, ‘죽이는 남성(he who kills)’이 누가 살아남을 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죽이는 남성’은 현재까지 모든 가부장적 논리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가부장제 구조와 이데올로기는 유지되어온 것만이 아니라 분화되거나 수정되기도 했다.<sup>14)</sup>

남성문화는 세상을 지배와 복종, 정복과 착취의 관계로 인식한다. 자연을 정복하고 타인과 여성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이 남성다운 삶의 모습이다. 이러한 삶의 지향성은 세상을 약육강식의 치열한 싸움터로 왜곡시킨다.<sup>15)</sup> 그러나 남성 지배 문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적·정치적으로 매우 제한된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하는 관념을 가지게 한다.<sup>16)</sup> 남성은 사랑, 우정, 친절, 그리고 삶의 의미보다는 생존과 외부적 성공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습과 조건 속에 양육되고 길들여져서, 지배욕과 소유욕을 남성다운 미덕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남성 지배문화의 바탕에는 이분법적 인식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즉, 육체, 자연, 여성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열등한 존재이므로 정신, 인간, 남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역사 동안 가부장제 안에서 남성들은 완벽한 존재로 군림해왔다. 자연과 세계를 정복하는 근대화 과정에서도 남성들은 삶의 질서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획일적인 객관이나 거대담론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다. 우리는 회의, 절망과 죽음이 만연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정신분열적 사회에 살고 있다.

14) 미즈, 마리아 외,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꿈지모 옮김, 2013, 76쪽.

15) 김재희, 『깨어나는 여신』, 정신세계사, 2000, 181쪽.

16) 서영표, 『사회주의 녹색을 만나다』, 한울, 2010, 62쪽.

시대가 새로운 원리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지배문화는 주도권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

남성 지배문화는 “피붙이, 학교붙이, 땅붙이들의 ‘놈들끼리’, ‘남’은 따돌리는 ‘따로’를 형성해 삶터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세상의 조직과 운영방식이다.”<sup>17)</sup> 그러나 남성들은 이런 양상들이 자연 질서인 것처럼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 온갖 논리로 무장하고 술한 신화와 상징을 재생산하며 모든 자연생태계의 중심에 인간을 놓는다. 인간에 의한 자연파괴를 당연시하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오늘날 지구적 위기상황을 야기한 모든 문제가 ‘신(神)’의 발명에서 비롯한다고 보았다. 서구의 백인남성은 여성, 흑인, 비서구인에 비해 더 합리적이고 문명을 가지고 있으며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이런 ‘신’을 정점으로 하는 가치의 피라미드는 인종차별주의나 제국주의의 논리로도 사용되었다.<sup>18)</sup> 남성 지배문화는 자연, 여성, 어린이, 제3세계 노동자들을 위계적 위치에서 아래에 놓고 억압하고 착취한다.

여성학자로 널리 알려진 보봐르(Simone de Beauvoire)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은 남성에게도 적용가능하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 또는 타인을 억압하거나 폭력성을 내재하게 된다. ‘가름과 나눔’, ‘따로와 끼리’라는 남성중심의 지배문화는 그 자체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sup>19)</sup> 가장 전형적인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인 것이다.<sup>20)</sup> 이처럼 남성중심 지배문화는 생명과 자연에 반(反)하는 구조적 폭력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가부장적 체제에서 폭력적인 남성성이 견고하게 만들어진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질서가 있었다.

첫째, 서구의 신중심 사회가 인간중심, 개인중심의 생활로 바뀌면서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거기에 중세의 금욕적인 성문화가 합쳐지면서 공격적인 남성중심의

17) 정유성, 『따로와 끼리-남성 지배문화 벗기기』, 책세상, 2001, 25쪽.

18) 김재희, 『깨어나는 여신』, 182쪽.

19) 정유성, 위의 책, 44쪽.

20) 정유성, 위의 책, 27쪽 재인용.

이성이 중심에 서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남성중심, 이성중심의 인간관을 뒷받침하는 철학이 자리를 잡고 남성지배적인 세계관이 형성되었다.

둘째, 서구 남성들은 군대와 교역이라는 무기를 들고 '정복자'가 되어 닥치는 대로 파괴를 일삼으며 땅, 돈, 권력을 얻기 위한 제국주의 팽창과 경영이라는 남성적인 인간 활동들을 조직했다.

셋째, 도시라는 새로운 삶의 환경이 등장했다. 도시는 사람들의 익명성이 담보되고, 소비가 넘쳐나며, 사람들 사이의 친밀함도 없고 안정되지 않은 삶의 환경이다.

넷째, 서구의 시민전쟁과 혁명 등을 통해 절대국가가 등장했다. 절대국가는 자본주의와 손잡으며 위계화 된 사회관계를 계급으로 엄격히 가르고 나누며, 부국강병을 빌미로 사람들을 군사주의에 몰들었다. 새로운 사슬에 묶이게 된 남성들은 성차별적인 틀을 정당화함으로써 현대적 남성성의 틀과 신화를 만들고 유지한다.<sup>21)</sup>

이러한 네 가지 새로운 삶의 패턴은 산업사회, 소비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남성, '가부장적 남성'이라는 하나의 남성상을 만들었다. 이러한 남성 지배문화는 여성들과 문화적 타자 집단에 의해 문제제기가 되어 왔으며, 이를 자각한 남성들 또한 사회변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 2.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비판

### 1) 생산과 소비의 분리

다양한 환경위기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생명을 이어나가는 재생의 원천에 대한 식민화이다. 근대과학기술은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적 순환을 조각내어 원료와 상품이라는 단선적 흐름 속에 억지로 끼워서 넣었고, 자본주의는 자연적 성장주기를 파괴하면서 급성장을 이뤘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사능오염물질, 오존층의 파괴, 산업폐기물과 농약 사용으로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소비나 생활 방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물질적 풍요로움

---

21) 정유성, 위의 책, 70-72쪽.

속에서 ‘몸 따로 머리 따로’인 분열적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회계에서는 생산과 소비를 재생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급적인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빼버린다. 반면 전쟁이나 사고, 기름유출, 무기생산 같은 파괴적 일들은 더 많은 수요와 경제 성장을 ‘창조’하기 때문에 국민총생산(GDP)에 포함된다.

마르크스적 경제학에 따르면 상품생산 체제의 논리는 잉여가치의 생산과 영구적 성장의 충동이라는 원칙들에 기반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잉여가치가 사적으로 축적되고, 과거 사회주의에서는 국가에 의해 축적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 논리는 동일하다. 두 체제에서 인간은 생산자로서나 소비자로서 원칙상 주체이다. 그러나 두 체제 모두에서 생산과 소비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한다.<sup>22)</sup> 왜냐하면 경제주체인 개인들은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지닌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뉘이기 때문이다. 생산자로서는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려고 유독물질과 방사능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동시에 소비자로서는 맑은 공기와 오염되지 않은 식품을 얻기 위해 자신의 거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쓰레기처리장을 짓기를 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이런 모순된 방식으로 살아가려 한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상품생산의 모순적인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는 한 정치·경제·생태·윤리·영적 위기들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자들은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소비자들이 환경위기를 우려하게 되자, 이를 투자의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하고 에코마케팅을 펼치고 환경단체에 후원하는 등 환경위기를 새로운 자본주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자본주의는 더 많은 자연을 사유재산과 상품으로 바꾸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를 재생이라는 맥락에서 보지 못하는 한 자본축적이 확장되고 생활수준이 올라가더라도 삶의 질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성장만을 맹신하는 생산과 소비논리로 인류의 시련으로 다가온 자연파괴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

22) 미즈, 마리아 외, 『에코페미니즘』, 367쪽.

## 2) 여성의 식민화

여성주의에서는 근대국가에 작동해온 자본주의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왔다. 그 가운데 여성의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노동시장에서도 여성의 공적 노동을 저임금화 하는 가정주부화 과정을 식민주의 맥락에서 분석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은 여성의 생물학적 혹은 자연적 기능으로 간주한다.<sup>23)</sup> 여성의 식민화 과정은 가정주부화의 논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즈(Maria Mies)에 의하면 가정주부의 노동은 자본축적과정의 원천으로, 이들의 노동은 잉여가치 생산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바탕이 된다.<sup>24)</sup> 즉, 자본주의에 의한 여성의 식민화는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가정주부의 무상노동을 조종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무상노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노동의 가정주부화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여성의 식민화과정은 식민지 전체와 노동계급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부르주아 여성은 그들의 생산적 자율성만이 아니라 생식력 또한 남성에게 억압받고 엄격하게 통제되며 의존적으로 길들여진다. 또한 여성의 식민화는 자연적인 성별노동분업의 모델이 되었다.<sup>25)</sup>

만약 서구의 기업가들에게 식민지 정복과 착취 및 약탈이 없었다면, 산업혁명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고,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발명품에 관심을 가질 자본가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고, 부르주아 계급은 제3세계 여성들을 가사도우미로 들 정도로 충분한 부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식민화는 근대적 산업팽창을 가능하게 한 인간노동의 생산성 발견을 위한 전제조건이었으며 현재도 그러하다.<sup>26)</sup> 자본주의에 의한 여성의 식민화는 야만적 여성과 문명화된 여성을 만들어내고 이 둘을 양극화시킨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식민주의에 의해 다른 지역을 식민화하는 원리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원리에 의해 제3세계 여성들을 착취하고 있다.<sup>27)</sup> 즉,

23) 미즈, 마리아,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옮김, 갈무리, 2014, 121쪽.

24) 미즈, 마리아, 위의 책, 97쪽.

25) 미즈, 마리아, 위의 책, 167-168쪽. 캐리비안의 노예여성은 수입노예에 비해 재생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이 허용되지 않았고, 부르주아 여성은 자신들을 소유한 남성 한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출산자로 길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재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미즈, 마리아, 위의 책, 206쪽).

26) 미즈, 마리아 외,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78쪽.

부르주아 여성은 다른 한쪽의 여성을 노예화하고 착취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노예화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남성이 여성을 노예화하는 것처럼 부르주아 여성도 다른 여성을 노예화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시민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여성의 식민화이다. 근대국가에서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재생력의 터전으로 종자와 여성의 육체가 최후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이다.<sup>28)</sup> 자본주의적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자연과 여성은 원료의 제공처로, 혹은 무상의 재생산 영역으로 여겨질 뿐이다. 여성의 성과 출산력, 작업능력, 노동력의 통제가 없었다면 근대사회의 출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여성능력들은 성장 또는 자본 축적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고려되지 않거나, 고려되더라도 매우 적은 비용으로 계산된다.

근대 자본주의는 이러한 ‘식민지’를 바탕으로 지속되어 왔다. 그것들은 ‘비용의 외부화’를 위한 영역이다.<sup>29)</sup> 그러나 자유무역이 진정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되려면 ‘비용의 내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장이란 과학과 기술의 발전 또는 마르크스의 용어로는 ‘생산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끝없이 상승하는 무한한 전진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한된 세계에서 ‘제한되지 않는 성장’이라는 것은 모순적이다. 성장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타자의 희생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어떤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의 개발은 없어야 한다.<sup>30)</sup>

다국적 기업은 지구의 모든 지역과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였고 지구적 차원에서 ‘자유무역’을 정형화하였다.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는 여성들의 노동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지역이 세계경제체제에서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정주부화를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식민화 노동에 투여

27) 미즈, 마리아,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217쪽.

28) 미즈, 마리아 외, 『에코페미니즘』, 41쪽 재인용.

29) 미즈, 마리아 외,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75쪽. ‘비용의 외부화’는 공장경영자가 자신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로 인하여 일반대중이 병에 걸리거나 악취로 고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마땅히 치러야 할 비용을 외부화 함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 또한 ‘비용의 외부화’를 은폐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거짓 명예를 얻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 생태적 비용을 외면함으로써 확보되는 가격 경쟁력을 통해 이윤과 생산을 극대화하고 있다. ‘비용의 외부화’는 도덕적으로 보면 최악이지만 오늘날 경제체제의 당당한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이 진정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되려면 ‘비용의 내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박민영 지음, 『인문학 세상을 읽다』, 인물과사상사, 2009, 144쪽 참조.

30) 미즈, 마리아 외,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70-71쪽.

되는 인력을 대부분 여성으로 무임금이나 값싼 노동력을 지불하면서 착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 전략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노동의 이중고를 겪게 된다.

가정주부화는 “노동력의 무임금 생산뿐 아니라 가내 혹은 그와 유사한 관계에서 여성들이 주로 하는 가장 값싼 종류의 생산노동을 의미하게 된다.”<sup>31)</sup> 여성의 ‘가정주부화’는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거나 적은 비용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재’로 취급되어 착취당한다. 이러한 여성의 ‘가정주부화’는 물, 햇빛, 공기와 같은 공짜자원으로 남성들의 노예화에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sup>32)</sup> 여성들은 할 일 없는 ‘주부’라는 식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안전과 건강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일제 노동자로 임금노동 시장에서 일을 하거나 가족의 부양자가 되어도 노동의 가정주부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미즈는 여성의 착취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여성은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서도) 남성에게 착취당하고, 자본에 의해 주부로 착취를 당하며, 여성이 임금노동자인 경우에는 [자본에 의해] 저임금노동자로서도 착취당한다.”<sup>33)</sup>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여성들은 수세기 동안 길들이기 위해 사용된 폭력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내면화하고, 자진해서 사랑으로 규정한다.<sup>34)</sup>

오늘날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나서고 있고, 모든 자본가는 주부와 유사한 노동관계를 보편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전략은 산업국가에서 잘 확립된 주요 노동기준을 훼손시키며, 기업들은 자본의 관점에서 ‘값싼 노동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베를호프(Claudia von Werlhof)는 자본주의 식민화는 계약에 의해 보호받던 숙련된 남성 노동자보다 주부가 자본주의 전략과 맞아떨어진다고 보고, “노동자 계급은 죽고, 주부는 영원할 것”이라고 한다.<sup>35)</sup>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과 원료와 시장을 점유하고 더 많은 미개발된 자원을 착취하게 된다. 지구적 자본주

31) 미즈, 마리아, 위의 책, 78-79쪽.

32) 미즈, 마리아, 위의 책, 73쪽.

33) 미즈, 마리아,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107쪽.

34) 미즈, 마리아, 위의 책, 170쪽.

35) 미즈, 마리아 외,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99-100쪽 참조.

의의 이러한 식민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로 논증할 수 있다.

첫째, 식민지와 피식민지 간에는 직접적이거나 구조적인 폭력에 의한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폭력 없는 식민화는 없다.

둘째, 자본의 성장은 지구적 체제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은 증가하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지구적 폭력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셋째, 자본의 지속적인 성장은 가부장제의 사회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성장이 나 축적을 위한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그들이 일한 가치의 일부만을 돌려줄 뿐이다.<sup>36)</sup>

오늘날 자본주의 식민주의는 여성과 제3세계의 식민화를 바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을 무임금 또는 저임금으로 착취한다. 여기에는 가부장제의 구조적인 폭력도 있지만, 이제 세계적인 자유무역 또한 여성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오랜 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도록 한다. 자본가들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연도 원하는 대로 착취해도 되는 원료 제공처 혹은 무상의 재생산 영역으로 여긴다.

### 3)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

근대 민주주의 민족국가는 헌법에 자유·평등·박애라는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이 정치·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면 노동의 잉여가치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와 여성, 정치적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득권을 가진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는 18~19세기 서구의 식민지가 확장되고 근대과학이 출현한 계몽주의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시기에 ‘인간(Man)’을 지칭하는 백인과 ‘자연(nature)’에 가까운 흑인과 갈색인을 구분하였고, 남성(man)과 여성(woman)을 분류하였다. 자본주의 과학과 함께 발생한 인종주의는 인간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서구 남성)만이 ‘인간화’되고 이성과 역사와 자유의 영역에 들어

36) 미즈, 마리아 외, 위의 책, 71-72쪽 참조.



갈 수 있다고 보고, 다른 범주의 사람들(흑인, 유색인, 여성)을 ‘자연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후자의 흑인, 유색인, 여성 등은 이성과 역사가 없는 순전히 생물학적인 ‘미개인’으로 정의되었다.<sup>37)</sup> 단지 그들은 다른 범주의 사람들을 끝없는 재생산의 순환에 참여하는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는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기계와 전자산업의 발달에 따른 포르노 비디오 산업은 여성을 가학적인 폭력의 피해자로 등장시킨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자체가 상품이 되고 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상품화하며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과학기술은 유전자 연구에서 선택과 제거의 원칙을 적용하여 태아검진과 품질관리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거대 자본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제3세계 여성들의 임신은 전염병으로 간주되어 국가가 나서서 인구과잉을 막기 위한 기술의 발달을 정당화하도록 한다. 제3세계의 곤궁한 여성들은 몇 킬로그램의 밀을 대가로 불임수술을 받고 있고, 그나마 나이든 여성이나 이미 불임수술 받은 여성, 남편이 없는 여자는 그마저도 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sup>38)</sup> 생명의 탄생은 경이롭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여성의 몸이 단지 국가와 자본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제3세계 여성들에게 실시하는 피임법은 단지 임신율의 저하를 위한 것이지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주사용 피임약(ICs)과 같은 것은 서구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허가가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제3세계 여성들에게는 시험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3세계를 비롯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위한 인간실험실이 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들은 산아제한이라는 긴급 구호프로그램을 통해 제3세계의 여성들을 실험도구로 쓰고 있다. 이것은 서구의 여성들에게 임상실험을 하는 것보다 싸고, 빠르고, 인권문제 등 정치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위험성과 실험에 내재한 인종주의를 감추고 있다.

태아검진 기술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원래 태

37) 미즈, 마리아 외, 『에코페미니즘』, 225-226쪽.

38) 미즈, 마리아 외, 위의 책, 241쪽.

아검진 기술은 태아의 유전적 기형을 알아내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결혼 지참금의 부담이 큰 인도에서는 성(性)감별용으로 쓰이고 있다.<sup>39)</sup> 이처럼 경제 논리가 여성의 생식과 관련된 선택과 제거의 논리로 작동하면서, 인종주의적, 성차별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본주의가 이용하는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는 비윤리적인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따라서 여성주의 운동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

### 3. 근대과학기술 비판

#### 1) 환원주의 인식론의 한계

오늘날 과학기술은 15-17세기에 걸쳐 서구에서 이뤄진 근대과학혁명에서 비롯되었다. 많은 이들은 근대과학을 보편적이고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지식체계이며, 생명과 우주와 그 밖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은 과학기술을 통하여 인류 전체를 해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여성주의는 이러한 서구 남성중심적인 근대과학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근대과학의 바탕에는 전체를 부분으로 쪼개고, 그렇게 쪼개진 부분을 전체로 환원하는 환원주의적 인식론이 있다. 환원주의 인식론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능력을 축소시키고 자연을 무기력한 물질로 다룸으로써 자연의 창조적인 재생능력을 간과한다. 이것은 특정한 형태의 정치·경제 조직의 요구에 순응하는 응답이었다. 환원주의 인식론에서 기계의 은유는 자연이 분할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머천트(Carolyn Merchant)는 “우리는 현실을 살아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일종의 기계로 재개념화 함으로써 자연과 여성에 대한 지배

39) 미즈, 마리아 외, 위의 책, 243쪽.

를 허락하게 된 세계관 및 과학의 형성을 재조사해야만 한다”<sup>40)</sup>고 비판한다. 환원주의적 인식론에 바탕을 둔 과학은 여성과 자연의 온전한 생산성과 힘, 잠재력을 빼앗는다. 이것은 자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원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오직 이윤의 극대화라는 척도로만 효율성에만 관심이 있고,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극에 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복잡한 생태계를 단일한 구성과 기능으로 조작 가능하도록 환원시킨다. 예를 들어 “숲은 상업적 목재로, 목재는 펄프와 제지업을 위한 섬유소로 환원된다.”<sup>41)</sup> 이처럼 환원주의 인식론에 바탕을 둔 기업은 다양한 생명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숲이 파괴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환원주의 인식론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위해 지구환경을 파괴할 수 있도록 이용되어 왔다. 생태계의 다양성과 여성의 재생산 능력은 원료로 환원될 뿐 무가치한 것으로 둔감하였다. 환원주의 인식론은 재생력의 장소인 자연을 원료를 제공해주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인간과 자연을 단절시키며, 중국에는 지구환경 위기를 초래하도록 하였다.

## 2) 생명공학기술의 반환경성

생명공학, 유전공학, 생식기술은 과학의 패러다임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결합이야말로 과학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조명해준다. 생명공학기술은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최후의 경계까지 무너뜨리고, 재생산의 순환을 조각내어 단순한 원료와 상품으로 취급한다. 생식기술과 유전공학은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유기체를 분자, 세포, 핵, 유전자, DNA 등 점점 작은 단위로 쪼개어 공학자의 구도대로 재결합시킨다. 이 과정에서 생명공학기술자들은 바람직한 요소를 선택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는 제거하려고 한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들이 자유로이 스스로 생식을 조절한다면 이러한 선택과 제거는 필요 없을 것이다.

생명공학기술의 이런 과정에 대해 윤리적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인간을 자연의 일부가 아닌 자연의 지배자로 보는 인간관과 자연관은 이런 비판

40) 머천트, 캐롤린, 『자연의 죽음』, 전규찬 외 옮김, 미토, 18-19쪽.

41) 미즈, 마리아 외, 『에코페미니즘』, 40쪽.

을 무시한다. 인간은 이성의 합리성과 두뇌의 능력으로 자연의 주인이자 지배자로 정당화된다. 즉, 머리는 신체의 아래 부분보다 우월하고,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며, 문명은 자연보다 우월하다.<sup>42)</sup> 예전에는 몸에 대한 머리의 통제가 인간에 대한 통제를 뜻했으나 생명공학은 그러한 인간 개념 자체를 제거해버린다. 생명공학자에게 있어 인간은 오직 유기물질, DNA, 원료의 덩어리일 뿐이다. 인간의 주체적 정신은 사라지고 대상화된 몸만 남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와 결합한 출산의 의료화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관리를 전문가인 의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임신한 여성은 아기를 낳는 재생의 원천이 아니라 단순히 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간주되고,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 의사는 최상의 생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의학적인 ‘처치’를 극대화하고, 여성의 ‘진통’을 극소화하는 제왕절개 수술을 산모에게 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느 전문가 위원회에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는 의사를 ‘태아 자체의 형성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하다.<sup>43)</sup> 여성은 전문가들에 의해 자신들의 고유의 영역인 아이를 낳는 일조차 내맡겨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었고, 여성의 몸은 도구적인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생명공학기술은 재생산과 관련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들은 ‘미개한’ 것으로 치부하고, 거대한 기업의 손아귀에서 더 많은 힘과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 3) 생물다양성의 상실

전통농업에서는 다양한 종자를 유지 관리함으로써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지켜왔다. 종자의 핵심은 생명의 지속성에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은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다. 여성과 생물다양성은 여러모로 얽혀있다. 대부분의 전통농업에서 여성들은 자연과 생태계의 원리와 흐름을 농사와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적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들은 생태적으로 풍부한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실천을 수천 년간 보존해왔고, 지속가능성의 정의에 기초하여 식량과 영양을

42) 미즈, 마리아 외, 위의 책, 231쪽.

43) 미즈, 마리아 외, 위의 책, 42쪽 재인용.

공급해왔다.

그러나 다국적 종자 기업은 고의적으로 다음세대를 낳을 수 없는 종자를 만들어냄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농부들을 종자관리자에서 종자소비자로 바꾸어놓는다.<sup>44)</sup> 이런 생명의 단절 속에서 종자는 오직 생명공학 산업을 위한 ‘원료’로서만 가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은 생물종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의 원천이 되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약(GATT)’는 지적재산권(IPR)에 ‘무역관련’이라는 어구를 덧붙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이라는 개념적 정의를 내렸다. 이를 통해 유전자원과 생명체의 소유권을 초국적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sup>45)</sup>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약(GATT)’에서 지적재산권은 농촌 여성들로부터 힘과 통제권과 지식을 앗아가는 또 하나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GATT와 그 밖의 국제규약에서 지적재산권은 농촌 여성이 관리·보호하던 종자를 빼앗아 초국적기업의 사적 소유물로 만들었다.

다국적 종자기업은 종자 특허제도를 통해 제3세계의 농민으로부터 종자와 식물 원료를 무상으로 빼앗아 그들의 ‘창조물’로 만들었다. 제3세계의 가난한 여성들은 특허 받은 종자로는 새로운 종자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종자회사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허와 생명공학은 여성들의 이룬 업적을 훔쳐가는 이중의 절도행위이다. 그것은 제3세계의 생산자로부터는 생물다양성을 훔치고, 세계 곳곳의 소비자로부터는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훔쳐간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황을 다국적기업에게 유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가난한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다국적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창출은 여성의 노동과 지식을 인정하지 않고 세계를 단일문화, 획일성, 동질성을 향해 무자비하게 몰아붙인다. 여성 농민들에게 종자의 핵심은 생명의 지속성에 있다. 그러나 종자회사는 종자를 상업적 이익을 위한 ‘원료’로만 취급하며 여성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와 같은 종자의 식민화는 여성 신체의 식민화 패턴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윤과 권력은 모든 생물적 유기체에 대한 침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뿐

---

44) 미즈, 마리아 외, 위의 책, 21쪽.

45) 미즈, 마리아 외, 위의 책, 295쪽.

만 아니라 유전공학에 의한 유전자조작식품(GMO)은 세계적으로 ‘자연적’이며 안전하다고 규정되고 있으나 결코 인간과 자연에 안전하지 않은 위험요소들이 있다.<sup>46)</sup> 유전자식품 속의 항생물질에 내성을 갖는 유전자는 인간과 가축의 질병에 대한 일부 항생제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생생물에게 해로울 수 있고 서식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생물다양성의 상실은 생산자가 소비자인 자급적 농경단위에서 여성들이 보존해온 가치들로부터 여성을 분리시켜 단순한 소비자로 퇴출시켰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의 밑바닥에 깔린 생물다양성의 파괴는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의 전체성과 연결고리를 끊어버렸고,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들었다. 다수확품종의 단일경작을 하게 되면서 다양성을 지켜온 문화와 경제체제가 무너지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여온 여성들의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켰다.

생물다양성 파괴의 밑바닥에 깔린 정치경제학은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즉, 다국적 기업에 의한 생물종 단일화와 유전자조작 등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고, 농업생태계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생태순환의 전체성과의 연결고리를 단절시키고 있다. 이는 제3세계 여성들의 생존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46) 미즈, 마리아 외, 위의 책, 217쪽 참조.

### Ⅲ. 생태여성주의에서 본 생태철학

#### 1. 초기 생태여성주의

##### 1) 생태여성주의 태동

여성주의 운동의 첫 번째 물결은 1848년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투쟁이었다.<sup>47)</sup> 이 같은 ‘여성주의’는 여성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대신 쓰이기 시작했다. 또한 여성주의는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나 관점, 세계관이나 이념이기도 하다. 여성주의는 여성억압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고 여성해방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마르크스주의·급진주의·사회주의 등 여러 사상이나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더불어 발전했다. 이에 따라 1960년대부터 현대의 여성주의(feminism)를 지칭해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쓰이기 시작했다. 여성주의가 권리와 평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를 정적으로 보는 관점이었다면, 여성해방운동은 억압과 해방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사회를 더욱 역동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sup>48)</sup> 이것은 여성운동의 두 번째 물결이다.

세 번째 여성주의 물결은 영성적 여성주의로, 진실한 관계맺음의 신성한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나-너, 영혼 대 영혼의 깨달음이 있을 뿐 위계질서는 없다. 또한 세 번째 물결 안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물결의 본질이 담겨 있다. 이것은 나아가 여성의 지혜와 영성을 세상 안으로 이끌어내는 것과 관련 있어야 한다. 이때 초점은 전 지구적으로 세계 여성들과 아이들이 처한 환경과 관계를 변화하는 것에 맞추어졌다.<sup>49)</sup> 그러나 이것이 다양한 여성주의 이

47) 블린, 진 시노다, 『우리속에 있는 지혜의 여신들』, 이경미 옮김, 또하나의문화, 2003, 275쪽.

48) (사)한국여성연구소 지음, 『새여성학강의』, 동녘, 2009, 39-51쪽 참조.

론을 모두 포괄한 것은 아니다. 여성주의 운동은 자발적 활동과 집단의 독립성을 통해 운동 내에서 진정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역동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다.<sup>50)</sup> 여성주의는 여성억압을 탈식민성의 문제와 연결하는 탈식민주의 여성주의, 여성 억압에 대한 인식을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인식과 연결하는 중요한 이론이자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sup>51)</sup>

생태여성주의는 1964년 북친에 주창한 환경파괴의 원인으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사회생태주의의 영향과 1973년 환경위기의 원인으로 인간 중심의 자연 지배적 세계관(산업주의에 대한 심층생태주의의 비판)을 비판하는 아르네 네스 등과 상호영향을 주고받았다.<sup>52)</sup> 생태여성주의는 생태적 사유와 여성주의의 결합으로, 드본느(Francoise d'Eaubonne)의 저서 『여성해방인가 아니면 죽음인가』(1974)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태여성주의는 통합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문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에 보다 부합될 수 있는 미래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생태여성주의 관련 책들이 미국에서 출판될 당시, 급진적/문화적/영성적 경향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질주의적이고,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적 경향에서 나온 정치적 역량은 가려지고 정치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비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여성주의 운동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으로부터 성장해왔다.

생태여성주의는 생태학과 여성주의가 결합한 말이다. 하지만 생태여성주의는 자연과 성(gender)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계급, 인종, 나이 등등의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자연과 여성이 연계되어 있는 중층적 연관성을 조명하기 위한 다양한 담론들을 전개해 왔다. 생태여성주의는 그러한 담론들을 통해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배-복종 관계에서 오는 착취와 폭력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착취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시도해왔다.

49) 블린, 진 시노다, 『우리속에 있는 지혜의 여신들』, 278-281쪽.

50) 미즈, 마리아,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110쪽.

51) (사)한국여성연구소 지음, 『새여성학강의』, 55쪽.

52) 머천트, 캐롤린, 『자연의 죽음』, 12쪽.



## 2) 본질적 생태여성주의

생태여성주의는 여성운동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생태여성주의자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입장에서 환경문제와 여성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생태여성주의를 본질적 생태여성주의, 문화적 생태여성주의, 사회적 생태여성주의 주장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서구의 자유주의 여성주의자들은 남성과 동등한 교육과 경제력만 있으면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위치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남성들은 동료 여성들을 비하하며 동등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를테면 여성의 재생산(생식), 모성, 양육의 기질을 강조하는 여성 고유의 원리를 내세우며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본질적 생태여성주의를 태동시켰다.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본질주의적 여성주의자들, 혹은 생물학적 차이에 기초한 남성들의 여성지배야말로 억압의 본질적인 이유라고 믿는 여성주의자들은 자연이 그들의 중심이 되는 분석 범주이기 때문에 여성주의 관점에서 생태학을 검토한다.<sup>53)</sup> 본질적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인간들에 의한 자연 착취를 남성들의 여성 ‘착취’와 연결시키며, 여성만이 유일한 자연의 희망으로 본다. 그들은 사회에서 여성중속이 인간억압의 뿌리이고, 자연과 여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믿으면서 여성을 선으로 수용하고 남성을 악으로 보고 거부한다.

본질적 생태여성주의와 문화적 생태여성주의는 자연과 여성이 가부장제와 서구 문화사에서 피지배자의 위치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성과 자연의 연관성을 논의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본질적’ 입장에서는 여성의 생물학적 재생산 능력과 이와 관련된 성적인 특징을 강조하며, 여성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여성은 자연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여성성’의 가치를 재평가해 남성성의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54)</sup> 이러한 여성

53) 다이아몬드, 아이린 외, 『다시 꾸며보는 세상』, 174쪽.

54) Warren, Karen J., “Feminism and Ecology, Making Connections”, *Environmental Ethics*, 9(1), 1987, 14쪽.

과 자연의 동일시는 여성운동이 극복하고자 하는 서구문화의 남성과 여성, 문화와 자연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 속에 다시 갇혀버리게 된다는 이유로 비판받는다. 스티얼전(Noel Sturgeon)은 생태여성주의 운동이 본질주의 논쟁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분열되고 있고, ‘여성과 자연’의 연결은 일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적 본질주의’로서의 경향이 다분하다고 한다.<sup>55)</sup>

그레이(Elizabeth Dobson Gray)는 남성은 월경, 수태, 출산, 수유와 같은 여성만의 육체적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지각능력이 좁다<sup>56)</sup>고 한다. 하지만 여성과 자연, 생명생산을 뒤집어 이해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여성운동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폐배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sup>57)</sup>

본질적 생태여성주의자들이 출산이나 돌봄 등의 속성을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여성주의자들은 여성과 자연을 연결시키기보다는 여성과 자연을 떼어놓으려고 한다.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인 보바르(Simone de Beauvoir)는 ‘새로운 여성성(new femininity)’이라 부르는 것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여성을 자연과 동일시하는 것이나 여성과 모성적 본능, 여성과 그녀의 신체적 조건 등은 높이 부상된 전통적 여성의 가치들이다. (...) 여성들은 전통적인 역할에 맞추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는 얼마간의 여성들의 욕구들 충족시키려는 작은 노력과 함께-바로 그것이 여성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데 사용된 음식인 것이다. 자기 자신을 여성주의자라고 부르는 여성들조차도 항상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 번 여성이 ‘타자(他者)’라고 규정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그들은 ‘제2의 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 왜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평화를 사랑해야 하는가? 나는 당연히 남성·여성 둘 다의 공동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평화를 원한다는 뜻이다. 생태계를 여성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가 아니고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sup>58)</sup>

55) Sturgeon, Noel, *Ecofeminist Natures: Race, Gender, Feminist Theory, And Political Action*, New York:Routledge, 1997, 9-10쪽.

56) Gray, Elizabeth Dobson, *Green Paradise Lost: Re-mything Genesis*, Wellesley, Mass.:Roundtable Press, 1981, 113-114쪽.

57) 브라이도티, 로지,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한국여성NGO 율김, 나라사랑, 1995, 269-270쪽.

58) Schwarzer, Alice, *After the Second Sex* Conversation with Simone de Beauvoir, New York: Pantheon, 1984, 103쪽; 다이아몬드, 아이린 외, 『다시 꾸며보는 세상』, 176쪽 재인용.

보짜르는 남성보다 여성이 자연과 더 가까운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성차별적 음모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녀는 여성과 자연을 연결시키는 것이야말로 여성해방을 위해 투쟁하려는 여성들을 분산시키며, 그들의 힘을 생태학이나 평화와 같은 ‘부수적인 영역’으로 낭비시킨다고 주장한다.<sup>59)</sup> 자유주의적 생태여성주의자들은 환경문제를 자연자원의 급속한 개발, 농약사용을 비롯하여 오염물질을 규제하지 못한 결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남성에 의해 창조된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하는 문화적 생태여성주의 집단이 등장하였다.

### 3) 문화적 생태여성주의

문화적 생태여성주의는 서구 문화 속에서 여성과 자연을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평가절하 하는 인식에 대한 대응이다. 문화적 생태여성주의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학적 성(gender)은 분명히 다르며 억압의 빌미가 되는 것은 사회학적 성이라고 본다. 사회적으로 볼 때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권력 기반을 갖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망과 행동들도 결국 사회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다. 사회학적 성은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다.

문화적 생태여성주의자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관계지향적, 타자지향적, 양육적인 여성적 특질을 잘 발현한다고 본다. 그들은 이러한 여성적 특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여성=자연이란 등식은 분열된 세계에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한정시킬 때 사용된다.<sup>60)</sup> 따라서 여성과 자연이 동일하다는 입장은 자칫하면 여성과 자연의 가치를 평가절하 함으로써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인간과 자연 속에는 여성성만이 아니라 남성성도 포함되어 있고, 그들 사이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 단지 가부장적 문화체계 속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은 서로 대립되는 가치로 평가되고 위계적으로 규정되었을 뿐이다. 문화적 생태여성주의는 생태위기의 문제를 ‘지배의 논리’를 신봉하는 가부장제의 결과라고 본다.<sup>61)</sup> 따

59) 다이아몬드, 아이린 외, 위의 책, 176쪽.

60)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390쪽.

라서 가부장제의 지배논리를 근절시키지 않으면 여성과 자연에 대한 억압을 중식시킬 수 없다.

머천트(Carolyn Merchant)와 그리핀(Susan Griffin) 등은 자연과 여성의 연관성을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서구문화사에서 학문적·사상적 담론을 통해 여성과 자연의 은유적 상징이 억압과 지배의 기제로 사용되어 왔음을 밝혀낸다. 특히 그녀는 환경문제의 근본적 뿌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서구문화사에서 자연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고찰한다.

머천트는 『자연의 죽음』에서 근대과학의 발전을 통해 자연 인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자연에 대한 지배가 정당화되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또한 그녀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자연’과 ‘여성’이 역사적 지배담론에 의해 서로 연관되어 비유되고 규정되어 왔는지 보여준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르네상스기까지 자연과 여성의 은유가 긍정적·부정적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서구인들은 여전히 우주를 육체와 영혼과 정신을 가진 살아있는 유기체로, 그리고 대지를 순환하며 재생산하는, 만물을 기르는 어머니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sup>62)</sup> 그러나 고대 이후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중심적 지배체제는 여성과 자연을 영속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분열된 문화를 조장하였다.

머천트는 마녀사냥 당시 여성에게 가해진 고문에서 자연에 대한 해부 및 침략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 두 유형의 폭력이 모두 근대 과학기술의 방법론에 내재된 것임을 보여주었다.<sup>63)</sup>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으로 인식되는 자연에 가해지는 폭력은 식민지와 그 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머천트의 연구는 현대사회의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은유와 상징적 표현들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람들의 사고의 틀을 변화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그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 여성과 자연을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sup>64)</sup>라고 주장하고 있다.

61) Warren, Karen J., "Feminism and Ecology, Making Connections", 6-7쪽.

62) 머천트, 캐롤린, 『자연의 죽음』, 27쪽 참조.

63) 머천트, 캐롤린, 위의 책, 267쪽.

64) Merchant, Carolyn, "Ecofeminism and Feminist Theory", *Reweaving the World*, Sanfrancisco: Sierra Club Books, 1990, 100쪽.

그리핀은 『여성과 자연』에서 서구문화사에서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이 은유적으로 인간/남성과 자연/여성으로 연관되는 다양한 담론을 찾아 분석하였다. 그녀는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것 역사적으로 이 둘을 폄하하고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여성이 자연과 가깝다면 그것은 담론을 통한 사회문화적 구성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핀은 여성주의 형이상학을 옹호하면서 “그 안에서 여성들은 자연적 존재로서 자기 스스로와 환경에 재결합될 것이다”<sup>65)</sup>라고 말한다.

문화적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여성들의 독특성을 찬양하며 음악, 미술, 문학, 시, 마녀 집회 및 공동체 속에서 여성과 자연이 일치되기를 열망한다. 또한 남신(男神)에 반대되는 내재적인 여신을 내세워 신앙과 실천을 절충시킨 여성주의 영성운동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영성운동은 어떤 형태의 여성주의 관점보다 인종적인 다양성이 잘 드러난다.<sup>66)</sup> 문화적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영성운동을 통하여 토착적 영성의 전통을 이끌어 자연/문화의 이원론을 극복한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영성’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단어이다.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영성을 여신과 동일시하거나 만물에 깃든 여성원칙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영(靈)은 여성적인 것이지만 물질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물과 모든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사실상 연결원리인 것이다.”<sup>67)</sup> 문화적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여신숭배, 고대의례의 부활을 통해 여성과 자연과의 관계를 찬양하기도 했고, 개인과 사회의 변화 모두에 있어서 원천으로 보았다.

크리스트(Carol P. Christ)는 지구의 생태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대의 전통적 견해를 회복하고 인간, 신성(神性), 자연의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8)</sup> 모든 존재가 생명의 그물 속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경외하는 오래된 주술적 통찰로 가능하다. 이는 생명의 주기를 갖는 모든 존재양식이 출생과 성장, 죽

65) Griffin, Susan, *Woman and Nature: the Roaring Inside Her*, 10-11쪽.

66) 다이아몬드, 아이린 외, 『다시 꾸며보는 세상』, 177쪽.

67) 미즈, 마리아 외, 『에코페미니즘』, 29쪽.

68) Christ., Carol P., “Rethinking Theology and Nature”, *Weaving the Visions: New Patterns in Feminism Spirituality*, Plaskow, Judith and Christ, Carol P. eds.,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9, 314쪽; 김정희, 「생명여성주의의 존재론적 탐구: 반야불교와 노자의 ‘마음’개념에 기초한 신인간형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7, 15쪽 재인용.

음이라는 순환적 리듬으로, 끝없이 재생되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과 같다. 아이슬러(Riane Eisler)는 이러한 사회를 이상사회나 유토피아로 보지 않고, 지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생태학적 의식이라고 본다.<sup>69)</sup> 즉, 생명을 붙여넣고 유지시켜 주는 힘을 지닌 지구에 대한 존중은 보살핌, 연민, 비폭력, 자매애와 같은 여성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 2. 근본적 생태철학의 한계

### 1) 사회생태주의의 한계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연과 인간관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형태의 생태학적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다. 근본적 생태철학은 크게 사회생태주의, 심층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근본적 생태철학이 출현하게 된 흐름에 따라 사회생태주의와 심층생태주의의 주장에 대해 생태여성주의 관점에서 연관성과 차별성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사회생태주의는 1964년 급진적 환경운동가인 북친(Murray Bookchin)이 주창한 이론으로, 사상의 기본적 틀은 아나키즘(Anarchism)이다. 사회생태주의의 중요한 메시지는 “생태문제는 사회문제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점이다. 그는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생태위기가 가부장제 지배체제, 위계조직, 계급, 국가의 위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sup>70)</sup> 즉, 생태문제는 사회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로, 이러한 불평등이 생태계를 파괴하며 인간과 자연의 불평등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자연적 정의의 이면에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있다는 것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억압과 지배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보다 선행한다고 보았다. 인간 간의 지배가 사회와 자연으로 확장되어 나타난 것이 결과적으로 생태위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문제를 인간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바라본다.

69) 다이아몬드, 아이린 외. 『다시 꾸며보는 세상』, 55쪽.

70) 북친, 머레이, 『사회 생태론의 철학』, 문순홍 옮김, 서울출판사, 1997, 166쪽.

북친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그칠 줄 모르는 산업 확장, 기업의 이해 증진과 진보를 동일시하는 태도 등에 의해 작동되는데도, 정작 시장사회의 본질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녹색운동을 주도하고 있다.<sup>71)</sup> 북친은 자본주의와 녹색운동이 서로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한 모순적인 개념임에도 ‘녹색자본주의’라는 이름하에 부질없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sup>72)</sup> 그는 생태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억압하는 권위의 종식,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의식이 사라질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으므로,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계급주의, 자본주의, 중앙집권적 국가주의 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다.

북친은 인간과 무관한 순수자연이라는 개념을 반인간주의적 내지 인간혐오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으며, 우주 만물과 일체감을 느낀다는 생태의식은 동양적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sup>73)</sup> 게다가 인간은 추론적 인식능력으로서의 변증법적 이성을 지녔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이면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이성은 부정적 의미의 도구적, 분석적 이성이 아니라 추론적 인식 능력으로서의 변증법적 이성이다.<sup>74)</sup> 북친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변증법적 이성은 ‘A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실체가 가지고 있는 발전적이고 진화적인 속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즉, 인간의 정체성을 연구할 때, 한 실체가 특정 순간에 조직되는 방식뿐 아니라 현재와 다른 그 어떤 것이 되어가는 방식, 즉 발전의 방식을 모두 포착하려 한다.<sup>75)</sup>

북친은 변증법적 이성으로 자연세계 내의 인간과 자연을 설명하는 태도를 ‘자연주의’라고 부른다. 변증법적 이성을 설명하면서 그는 자연주의 개념을 두 가지 목적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변증법을 관념적인 해석과 유물론적 해석으로부터 구분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세계 내 인간과 자연의 위치를 보다

---

71) 북친, 머레이, 위의 책, 19쪽.  
 72) 북친, 머레이, 위의 책, 22쪽.  
 73) 북친, 머레이, 위의 책, 68쪽.  
 74) 북친, 머레이, 위의 책, 34쪽.  
 75) 북친, 머레이, 위의 책, 36쪽.

풍요롭게 설명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함이다.”76)

북친은 변증법적 자연주의를 통해서 사회문제와 생태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며, 두 가지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본다. 북친의 자연주의는 변증법적 자연관으로 자연은 역동적으로 계속 어느 방향으로 진화하며 변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자연은 무생물에서 생물로 그리고 자기반영적 생물로 진화하며 인간은 이 진화 과정의 최고단계에 있다. 그는 자연종들의 진화과정이 야말로 자유로운 자기선택에 의한 진화과정 그 자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적이고 발전적이고 변증법적인 자연을 “참여적 진화로서의 자연”이라고 부른다.77) 이렇게 참여적 진화과정으로서의 자연은 1차자연, 2차자연, 자유로운 자연 3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의 자연은 별개로 구분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 그는 『사회 생태론의 철학』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일 형용사가 덧붙여지지 않은 자연이란 단어를 이 책에서 조우하거든, 독자들은 그것으로 내가 “1차자연” 또는 자연세계의 누적적 진화(cumulation evolution), 특히 유기적 세계를 칭한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이 1차자연은 “2차자연”과의 관계에서 연속적이면서 동시에 불연속적이다. (...) “2차자연”은 1차자연의 반제(反題)로서 그것과 연속성을 가지고 진화한다. 이러한 진화는 양자가 생태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에서 자의식을 가진 “자유 자연” 또는 “대자연”으로 지양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78)

1차자연은 내재한 동력에 의해 진화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2차자연이 등장하는데, 북친이 의미하는 2차자연이란 독특하게 발달된 인간문화 전반, 즉 다양하게 제도화된 인간 공동체, 효율적인 인간 기술, 풍부한 상징 언어, 주의 깊은 식품관리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79)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할 수도 있고, 풍부하게 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에 대해 커다란 윤리적 책임져야 한다. “지배”와 대조되는 “상보”의 윤리는 인간과 비인간의 공생을 위해 지배와 위계질서를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상보적 윤리는 “상호주의, 자아구성, 자유, 주체성, 사회생태학의 원

76) 북친, 머레이, 위의 책, 59쪽.

77) 방영준, 『공동체 생명가치』, 개미, 2011, 248쪽.

78) 북친, 머레이, 『사회 생태론의 철학』, 16쪽.

79) 북친, 머레이, 위의 책, 164쪽.



칙인 다양성 속의 통일, 비위계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sup>80)</sup> 사회생태주의는 다 음과 같이 세 가지로 특징을 정리하고, 그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변증법적 자연관’이다. 자연은 유기체로서 역동적으로 진화하며 변화하 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자연은 자유로운 자기를 형성하며 진화해 간다. 그러 나 인간은 자연과는 달리 상징적이고 문화적으로 매개된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만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성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더 나은 사회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성중심주의’이다. 인간은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진화된 존재로 인간이 성에 대해 절대적 신뢰를 한다. 이성능력을 통해 인간은 다음 세대로 자신의 문 화와 지식을 전수할 수 있으며 인간종의 공동체적 사회의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인간의 이성능력은 병들어가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여성과 자연에 대한 ‘상보적 윤리’의 책임을 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의 이성은 여 성과 자연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작동해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사회문제와 생태문제’의 결합이다. 북친은 생태위기를 사회내부의 가부 장제 지배체제의 병리적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그가 말한 대로 지배체 제의 위계구조 또한 그 사회의 지배계급에 의해 형성된 것인데도, 생태사회로 가 기 위한 중요한 역할 또한 지배체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을 통해서 해결 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모순적이다. 사회생태주의는 다양한 사회세력 간의 사회 적 분업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욕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재생산을 이타적 노동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제해 왔던 것이다.

## 2) 심층생태주의의 한계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 深層生態主義)는 1973년 노르웨이의 철학자이며 자연주의자인 네스(Arne Næss)가 최초로 사용하고 정립한 용어이다.<sup>81)</sup> 네스에

80) 이귀우, 「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 『세한영어영문학』 제43권 1호, 2001, 41쪽.

81) Devall, Bill & Sessions, George, *Deep Ecology*; UT:Gibbs Smith, 2007, 65쪽. 네스에 의해 주창되었고, 후에는 스나이더(Gary Snyder), 폭스(Warwick Fox), 세션즈(George Sessions), 카프라(Fritjof Capra) 등 으로 계승되었다.

의하면, 심층생태주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인간의 착취로부터 자연을 해방시킬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을 완성시키게 된다.

심층생태주의는 오늘날 환경위기의 근본원인이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있다고 본다.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만 한정해서 파악한다.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토대를 둔 환경운동은 환경문제를 피상적(shallow) 수준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심층생태주의에서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상적 수준을 넘어 심층적(deep)이고 장기적인(long-range)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82)</sup>

심층생태주의는 기계론적 세계관의 개체론적이고 원자론적이며 환원론적 입장을 거부하고, ‘생태’ 그 자체를 하나의 전체이자 개체로 보는 전일론적(全一論的, holistic) 요소를 지니고 있다.<sup>83)</sup> 모든 존재들은 환경 속의 일부로 서로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생존하고 번성할 권리와 그 자신의 개체적인 자기계발과 자기구현 형태에 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생물평등주의를 지향한다.<sup>84)</sup> 즉, 모든 생명체는 본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 요소들을 제외하고는 생명의 풍요로움과 다양함을 해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인간에게 우선권을 줄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으며, 인간은 단지 생물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층생태주의는 생태계의 법칙이 인간의 욕구나 필요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본다.

지구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공유지이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모습과는 다르게 바뀌어야 한다.<sup>85)</sup> 이에 대해 심층생태주의는 내적인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자기(ego) 중심에 바탕을 둔 소자아(self)를 넘어서 우주와 하나임을 인식하는 대자아(Self) 실현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드볼(Bill Devall)과 세션즈(George Session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82) Devall, Bill & Sessions, George, *Deep Ecology*, 65쪽.

83) 홍은선,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주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논문, 2013, 56쪽.

84) Devall, Bill & Sessions, George, *Deep Ecology*, 70쪽.

85) 홍은선,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30쪽.

우리가 더는 우리 자신을 고립되고 편협하고 경쟁적인 자아(ego)로 이해하거나 보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과 친구에서부터 궁극적으로 우리 종족(species)으로까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시작된다. 그러나 자아에 대한 심층생태주의 의식은 더 깊은 성숙성과 성장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 비인간계를 포함하는 정체성을 필요로 한다.<sup>86)</sup>

심층생태주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전일론적 윤리’를 강조한다. ‘생태계’ 자체를 유기체로 보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태계 그물망 속에 부분들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생태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둘째, ‘생물평등주의’를 지향한다. 모든 생물들은 생존하고 번성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명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해칠 권리가 없다.

셋째, ‘자아실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지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공유지이기 때문에 인간은 지배적인 사고변화를 위해 내적인 변화를 모색한다. 그러므로 더 큰 ‘전체’와의 동일시를 요구하는 확장된 자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러나 생태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지구의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생태위기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의 확장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실천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층생태주의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생태의 그물망을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심층생태주의에서 전제하고 있는 자아의 개념적 차이를 살펴보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넓혀보고자 한다.

심층생태주의에서 ‘대자아(Self)’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중성적(中性的, gender-neutral) 자아 개념을 언급한다.<sup>87)</sup> 그러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세계는 다르다. 이런 차이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겨나는 자아인식은

86) Devall, Bill & Sessions, George, *Deep Ecology*, 67쪽.

87) 다이아몬드, 아이린 외, 『다시 꾸며보는 세상』, 203쪽.

중성적이지 않다. 여성들은 평가 절하된 자연세계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되고, 종종 스스로도 자신을 그러한 존재로 인정한다. 보봐르는 『제2의 성』(1974)에서 여성의 자아의식은 ‘타자’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sup>88)</sup>고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의 형상을 띤 타자를 정복하면서 성립되는 자율성의 (남성적) 자아를 기반으로 한다.<sup>89)</sup>

초도르(Nancy Chodorow)는 대상관계(object relations) 이론에서 여아나 남아 모두 모성적 존재(mother figure)의 한 부분으로 최초의 연관성을 경험한다고 한다. 그 후 아동들은 모성적 존재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 자아개념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남아들은 여아들과 달리 두 단계의 개체분리 과정을 거친다. 남자 아이들은 아버지와 동일시하기까지 어머니를 부정하고 배격해야 할 뿐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신속의 모든 여성성을 거부해야만 한다.<sup>90)</sup> 즉, 남자아이의 자아정체성은 타자에 대한 거부와 대상화에 기초한다. 이는 남성적 자아가 여성과 자연세계를 모두 부정하는 해석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남성적 자아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상태를 경험하고자 하는 평생의 갈망을 만든다.<sup>91)</sup> 예컨대 사냥은 본능적 자아를 갈망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남성철학자들 중에서도 “남성의 자아실현은 사냥과 동물살해를 통해 일어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sup>92)</sup> 남성들은 초월하고자 하는 이중적 자아의 본질로 인한 내적 갈등을 사냥을 통해 외부세계로 투사한다. 하지만 여성은 정체성 확립과정에서 그러한 남성의 경험을 겪지 않는다.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자아를 확대하게 되면, 각 개체에게 주는 상해를 극소화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 개체들을 모두가 포함된 대자아(all-inclusive Self)의 일부로 보이기 때문이다.<sup>93)</sup> 그러나 여성들의 자아의식은 관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충동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심층생태주의자들도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스(Arne Naess)에 의하면 “우리가 충분한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는 심층생태학의 직

88) 보봐르, 시몬느 드, 『제2의 성』, 이희영 옮김, 동서문화사, 2014, 15쪽.

89) 다이아몬드, 아이린 외, 『다시 꾸며보는 세상』, 204쪽.

90) 다이아몬드, 아이린 외, 위의 책, 205쪽 재인용.

91) 미즈, 마리아 외, 『에코페미니즘』, 174쪽 참조.

92) 다이아몬드, 아이린 외, 『다시 꾸며보는 세상』, 206쪽.

93) 다이아몬드, 아이린 외, 위의 책, 209~210쪽.

관이 있다.”<sup>94)</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드볼과 세션즈가 『심층생태학』에서 사냥, 과도타기, 항해, 일광욕, 자전거 타기, 등산과 마찬가지로 ‘적합한 태도’로 자아의 ‘성숙’을 고취시키는 유용한 활동<sup>95)</sup>이라고 제안하는 것과는 모순을 보인다. 이런 모순은 심층생태주의에서 동일시는 개체가 아니라 더 큰 생물권의 공동체 혹은 전체와 동일시하는 데서 생긴다. 다시 말하면 더 큰 전체와의 동일시는 전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행동보다는 전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제퍼스(John Robinson Jeffers)는 “우주가 하나의 존재이며, 모든 부분들이 같은 에너지의 다른 표현이며 부분들이 서로 연결됨에 따라 하나의 유기적 전체의 부분들이라고 생각한다. (...) 내가 보기에 이런 전체만이 심오한 사랑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sup>96)</sup>고 말한다. 그러나 더 큰 ‘전체’와 추상적으로 동일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존재의 중요성과 독특성을 말살시키는 위험스러운 전체주의를 낳기도 한다.

대자아(Self)라는 개념은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다. 하나는 개인으로서 자신과의 통합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주의자들이 자아의 본질로 여기는 ‘관계성(relationship)’의 결여이다.<sup>97)</sup> 심층생태주의자들 중 많은 이들이 대자아(Self)로의 확장을 위해 수많은 다양한 영적 전통을 끌어들이는다. 하지만 심층주의자들의 이러한 시도는 자신과의 분리와 권력을 향한 편집증적인 열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나이더(Gary Snyder)와 같은 심층생태주의자는 깨달음이라는 ‘확대된 자아’ 개념에 대한 선불교의 비판을 진지하게 수용했다.<sup>98)</sup> 심층생태주의는 네스에서 스나이더로 계승되면서 확대된 자아보다 통합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제3세계의 식민화라는 사회문제와 분리해서 해결할 수 없다. 모든 생명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깊고도 총체적인 의

94) Devall, Bill & Sessions, George, *Deep Ecology*, 75쪽 재인용.

95) Devall, Bill & Sessions, George, 위의 책, 188쪽.

96) 다이아몬드, 아이린 외, 『다시 꾸며보는 세상』, 213쪽 재인용.

97) 다이아몬드, 아이린 외, 위의 책, 233쪽.

98) 다이아몬드, 아이린 외, 위의 책, 30쪽·233쪽 참조. 선불교의 수행자에게는, 모든 피조물 안에 내재하는 부처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자아(ego)가 지우는 이원론적 추상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는 길이 된다. 깨달음은 일상적 삶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내포한다. 이는 우리의 노동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우리의 내재성이 있는 것이다.

식은 더 넓은 전체뿐만 아니라 특정한 개별 존재와의 관계에서 지구위기를 해결하려 한다.

근본적 생태철학으로 심층생태주의는 만물의 평등성을 주장하며 인간에 의해 파괴되는 생명의 그물을 근본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문제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부장적 남성애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여성주의 관점을 도입하여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 자연, 제3세계의 식민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여성들과 함께 연대하여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3) 초기 생태여성주의 비판

초기 생태여성주의는 여성과 자연이 본래적으로 동일하다는 생물학적이고 본질적인 입장의 주도적이었다. 본질적 생태여성주의 입장에서는 여성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넘어서 여성이 남성과 다른 모성, 감성, 직관, 돌봄의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여성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문화적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여성과 자연의 동일성 주장이야말로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남성들이 만들어낸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문화적 생태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자연은 그 자체로 역동적인 것이며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룬 것으로 본다. 여성적인 속성이든 남성적인 속성이든 자연의 보편적 속성이다. 그러나 고대 이후 남성들은 여성과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자연의 보편적 속성을 이원화, 도구화하였다. 따라서 문화적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적 가치의 변형을 시도하였다.

본질적이든 문화적이든 생물학적 차이에 기초해 여성을 지배하는 관점은 억압과 착취의 측면에서 자연과 여성을 동일시한다. 이에 대한 비판은 여성과 자연의 연관성을 논한다는 측면에서 이원론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빌(Janet Biehl)은 본질주의 입장에서도, 문화적 구성주의 입장에서도 여성과 자연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은 또 다시 '여성성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

다.<sup>99)</sup>

문화적 생태여성주의는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생태여성운동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문화적 생태여성주의는 비정치적인 존재라는 여성들의 자기인식을 변화시키며, 자신들과 담을 쌓고 있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추겼다. 이런 면에서 여성들 스스로가 일어서는 운동이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여성들 스스로 이 사회의 적극적인 주체로 여성들의 이야기를 해나간다면, 그동안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과 자연을 가치절하해온 사고방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부장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다른 형태의 억압과 착취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이든 문화적이든 모두 다 자연과 여성의 억압적 범주를 벗어나는 인종과 계층, 민족주의 문제를 넘어선 여성의 삶과 역사들에 대한 다양성을 적절히 언급하지 못한다. 여성, 역사, 권력, 자연의 복잡성을 인식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럼에도 오래된 영성의 전통을 끌어내어 이원론적이지 않은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 오래된 여성들의 지혜에서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여성과 자연의 본질적 속성인 재생산적인 영역에서 해방을 추구하는 것은 성(性)을 넘어서는 다름과 차이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문화적 생태여성주의는 개인적인 변화와 개인의 역량 강화에 대해 강조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를 정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영성과 정치학의 명백한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다.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개개인의 역동적인 발전이론을 요구하다보니 남성과 여성의 성차(性差)는 구체화되지 않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가 이해될 뿐이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에 대한 지배를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 역사에서 둘 중 무엇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의 논쟁은 의미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기 생태여성주의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자연의 영역에 묶어두게 되어 역사적 주체로서 여성을 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변증법적인 이

---

99) Biehl, Janet, *Finding Our Way. Rethinking Ecofeminist Politics*, Black Rose Books, 1991, 9-25쪽; 황선애, 「생태여성주의와 생태여성주의 문학비평-문제점과 전망」, *Women's Studies Forum* 제66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4, 4쪽 재인용.

론과 실천을 유기체적으로 전개시켜 나가야만 존재로부터 당위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자연과 인류가 화해하도록 정신과 역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생태여성주의자들의 실천은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환경보호운동과 여성건강운동 등 자연과 연관된 실천과정을 통하여 실천과 이론의 이원론적 방식을 극복하는 것이다. 생태여성주의는 여성해방과 자연해방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요구한다.

첫째,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다. 지배의 위계가 존재하는 사회는 자연을 지배하고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계를 제거하여 평등, 문화적 다양성이 비폭력에 대한 가치를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변혁을 통해 호혜적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변혁은 반드시 지적 변혁을 수반해야 한다. 생태여성주의는 위계적이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배제한다.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정신과 육체, 주관과 객관 따위의 이원론을 거부한다. 이원론적 사고는 위계적 가치체계와 결합하여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파괴에 대한 투쟁은 본질적으로 남성의 여성억압에 대한 투쟁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적 사고방식을 모색한다.

셋째, 자연의 가치를 평가하는 관점을 바꾸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반드시 변혁되도록 해야 한다. 생태여성주의는 자연의 도구적 가치보다 목적적 가치를 중시한다. 어떤 대상이 도구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무엇을 얻는 데 유용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어떤 대상이 목적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다는 뜻이다. 요컨대 자연의 가치는 인간의 유용성 측면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이 자연을 결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생태여성주의는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을 사회내부에 존재하는 주요 지배 유형으로 보고, 여성과 자연을 지배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전제한다. 사회의 억압적 대상으로 여성의 위치와 인간의 억압적 대상으로 자연의 위치가 서로 같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와 생태위기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서구문명의 이원론에 의한 분리와 위계화의 전략



은 여성에 대한 지배와 생태계의 위기를 가속화하였다는 것이다.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는 그 사회의 역사에 기원하기 때문에 해결책 또한 그 사회 속에서 나와야 한다. 초기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여성, 유색인종, 자연, 동물에 대한 지배방식이 사회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지금의 대부분의 정치·경제 체제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문화적 접근을 통해 여성과 생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으나, 그것들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생태여성주의는 사회구조적으로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과 자연에 대해,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지배체제에서 교묘하게 작동하는 흐름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

### 3. 생태여성주의의 진전

#### 1) 사회적 생태여성주의

사회적 생태여성주의는 북친(Murray Bookchin)의 사회생태주의와 보봐르(Simone de Beauvoir)의 논의를 결합한 것으로<sup>100)</sup> 자연과 여성의 억압을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경제체제와 사회체제의 문제로서 파악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생태여성주의는 지배와 위계질서에 대한 사회생태학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여성 억압과 자연 억압의 근원을 인간 사회의 진화 과정에서 찾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 킹(Ynestra King), 플럼우드(Val Plumwood), 미즈(Maria Mies), 쉬바(Vandana Shiva) 등이 있다.

---

100)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393쪽. 사회적 생태여성주의는 북친의 사회생태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자연에 대한 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특히 인간에 의한 지배는 삶의 모든 측면들을 시장체제로 바꾸면서 여성의 자궁까지 침입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사회주의 생태여성주의는 사회적 생태여성주의의 변형으로, 자연은 모든 생명의 물질적 토대이자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본다. 나아가 거대 자본에 의한 여성, 자연, 제3세계의 착취는 생태계의 파괴와 토착민들의 건강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본다. 전자와 후자 모두 지배체제로부터 여성과 자연의 해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 생태여성주의로 통칭하였다.

킹은 여성과 자연의 상호 연관된 지배에 대한 분석과 이러한 지배의 형태 속에 나타나는 여성의 역사적 위치가 생태여성주의적 이론의 출발점<sup>101)</sup>이라고 보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인간(서구백인남성)중심주의,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환경 파괴는 서구 문명의 뿌리에 놓여 있는 이원론과 관련이 있다.<sup>102)</sup> 그녀는 여성이 그들의 신체와 성(sexuality)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조차 바로 이 이원론에 근거한 남성주의적 정신에 의한 것으로, 그것은 복잡다양한 지배체제와 국가권력에 바탕을 두고 남성주의적 시각을 관철하고 있다고 본다. 킹은 기업 전사(corporate warrior)들의 지구 파괴와 군대 전사(military warrior)들의 핵 전멸 위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03)</sup> 그녀는 생태여성주의의 과제가 반(反)이원론적이고 변증법적인 이론과 실천을 유기체적으로 꾸준히 전개시켜 나가야 하며, 허무주의와 비판주의에 빠져 이성과 역사의 종식을 선언하기보다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 참된 윤리적 사고를 추구하자고 제안한다.

플룸우드스는 생태여성주의를 이론적으로 강화하여 비판적 생태여성주의를 정립하려고 하였다. 『페미니즘과 자연의 지배』(1993)에 따르면, 이전의 생태여성주의는 급진적/문화적 여성주의와 연결되는 등 편파적으로 곡해되었고, 이론적으로 약하여 여성해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어 북친의 사회생태주의도 서양철학의 계몽주의적 인간중심주의와 이성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자연을 인간과 동등하게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sup>104)</sup> 즉, 사회생태주의는 인간이 자연을 식민화하는 방식이 인간 사회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서구의 제3세계 식민지화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플룸우드스는 인종, 계급, 여성, 자연에 대한 억압의 공통된 원인을 서양의 인간(이성)중심주의에서 찾는다.

미즈와 쉬바 역시 여성과 환경의 문제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적 경제체제와 사회체제의 문제로, 이것은 여성과 자연, 제3세계의 식민화문제 등 보다 넓은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05)</sup> 사회적 생태여성주의는 인간의 생산과 재생

101) 다이아몬드, 아이린 외, 『다시 꾸며보는 세상』, 187쪽.

102) 브라이도티, 로지 외,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134-136쪽.

103) 미즈, 마리아 외, 『에코페미니즘』, 25쪽 재인용.

104) 이귀우, 『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 44-45쪽 재인용.

105) 미즈, 마리아 외, 『에코페미니즘』, 26-28쪽 참조.

산, 자연의 생산과 재생산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반면, 국가사회주의는 경제 성장과 경쟁을 전제조건하에 재생산과 생태가 모두 생산에 종속되어 있다.<sup>106)</sup> 그리고 자본주의적 가부장적 경제체제는 삶의 모든 측면들을 시장경제체제에 포섭하면서 여성의 자궁에까지 침입하고 있다.<sup>107)</sup> 즉, 자본주의적 가부장적 경제체제는 자연의 경제와 인간의 경제가 동반자적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서 자연과 폐기물은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외부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생태여성주의는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위계로부터의 여성해방을 주장한다.

사회적 생태여성주의는 변증법적으로 사회적, 생태적 변혁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끌어주는 실천적 행위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사회적 생태여성주의는 여성의 몸을 정치화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앎을 중요하다. 자신에 대한 앎이라는 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앎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존사회의 불편부당한 원칙들에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며, 자신의 살아가고자 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나아가 서구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적 정치를 모색하기 위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류터(Rosemary Ruether)는 “지배적 관계를 사회관계의 근본 모형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여성을 위한 해방이 있을 수 없고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해결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성들은 알아야 한다.”<sup>108)</sup>고 한다. 따라서 사회적 생태여성주의자들은 문화적 생태여성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여성의 정치적 상상력이 정치적 활동을 통해 드러난다는 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인간역사상 가장 강력한 문화적 토대와 희망적 상상력이 없이는 어떤 혁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생태여성주의도 여성이 남성보다 자연에 대한 생태학적 인식과 전일론적(holistic) 인식능력을 가졌음을 인정한다. 다만 이를 여성의 임신·출산과 같은

106) 드라이제크, 존 S., 『지구환경정치학의 담론』, 정승진 옮김, 에코리브르, 2005, 265쪽.

107) 드라이제크, 존 S., 위의 책, 261쪽. 제3세계 여성들은 이미 ‘자궁’과 ‘난자’를 상품화하고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비난할 수 없다. 누군가를 비난해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3세계 여성들의 생존을 유인책으로 신체의 일부를 판매하게 하는 조달업자, 포주들일 것이다. 즉, 여기에는 명백한 경제적, 계급적 문제가 비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108) 류터, 로즈마리, 『새 여성 새 세계』, 손승희 옮김, 현대사상사, 1980, 275쪽.

생물학적 경험과 연관시키지 않고 사회적·역사적·문화적 경험과 연관시킨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여성은 자연의 영역에 놓여 지면서 착취되어 왔다. 그러므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의 피해당사자인 여성의 경험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남성보다 변혁에서 더 우월하다.<sup>109)</sup> 그러나 생태학적 인식은 위계적이고 지배적인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에 기초한 생태학적 윤리에서 가능한 것으로, 책임감으로 연결된 사회에서는 돌봄이 공동체적으로 행해질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도 사라질 것이다.

사회적 생태여성주의는 초기 생태여성주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여성의 억압을 자본주의적 가부장적 경제체제와 사회체제의 문제로 파악한다. 또한 탈식민화 이론과 함께 제3세계 여성문제와 생태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생태여성주의는 인공과 자연, 기계와 유기체, 인간과 사이보그 등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사이버시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술과학 시대의 변화에 맞춰 대안을 마련하려면 기존의 생태여성주의 이론에 대한 수용과 더불어 새로운 여성주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구상에 현존하는 파괴와 착취적 체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대와 상황에 따라 교묘하게 변화하며 진화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계략을 분석해낼 새로운 생태여성주의 도입이 필요하다.

## 2) 새로운 생태여성주의

초기 여성주의 연구는 기술과학이 가부장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다름’의 정치학에 관심을 두고 있다. 와츠맨(Judy Wajcman)은 사회학적 여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인종, 나이, 계급, 역사, 민족에 따라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모든 문화 안에서 성 차이는 사회조직과 기본적인 개인의 정체성을 이룬다.<sup>110)</sup>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오늘날 자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인위적 개입이 된 자연문화이며, 또한 과학의 담론에는 남성성이 비의존적이고 사심없는 진실 말하기의 본질인 것처럼 보이게 되어서 사회적 성별의 문제가 보이지 않게

109) Plumwood, Val, *Feminism and Mastery of Nature*, London:Routledge, 1993, 36-37쪽.

110) 와츠맨, 주디, 『페미니즘과 기술』, 조주현 옮김, 당대, 2001, 39쪽.

되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과학에는 ‘강한 객관성, 즉 인간평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111)</sup> 또한 생명공학의 발전함에 따라서 기술과학(technoscience)이 갖고 있는 인간과 사물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양코마우스<sup>TM</sup>는 생쥐이지만 인간의 암 정복을 위해 암 유전자를 이식받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연구재료로서 맞춤형제작되어 팔리므로 유기체와 상품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고, 유전자는 유전공학자들이 생명이나 유전자를 조작, 이식, 복제하면서 마치 사물이나 상품처럼 이용하고 있으므로 생명과 사물간의 경계선을 위반하는 실례가 되고 있다.<sup>112)</sup>

그녀는 오늘날 세계가 여성인간<sup>©</sup>, 양코마우스<sup>TM</sup>처럼 저작권을 상징하는 ©를 위첨자로 첨가시킴으로 상품으로 변형시키거나 인간을 비생물적인 유전자로 환원하여 상품화하는 세계임을 폭로하고 있다. 이런 기술과학시대는 유전자가 이식된 유기체들을 넘어서 잡종을 만들어내었다. 분자생물학과 생명공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을 조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이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 문제가 따를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우생학적 선택과 제거는 복지의 시혜적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과학은 행위자로서 막대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정치경제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게다가 지구적 자본주의 사회는 과학과 기술이 제기하는 복합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해러웨이는 이러한 기술과학시대의 사이버문화는 권력과 부의 이동, 사회적 불평등 등의 정치경제를 함축하고 있다. 그녀는 사이보그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인간과 기계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유기체와 기계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본다.<sup>113)</sup> 더욱이 기술과학은 인간을 비생물적인 유전자로 환원하며 생명체까지 상품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성이나 인종, 국가

111) 해러웨이, 다나 J., 『한 장의 일사귀처럼』, 243쪽 참조.

112) 해러웨이, 다나 J., 『겸손한 목격자』, 민경숙 옮김, 갈무리, 2007, 13쪽.

113) 해러웨이, 다나 J., 위의 책, 12쪽.

를 막론하고 지구적으로 열려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자와 적게 갖고 있는 자의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해러웨이는 자연과 여성의 동일하다는 입장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기술과학의 잠재력을 이용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새로운 여성의 역할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자연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하여 자원으로서의 자연, 심층생태주의의 초월적 또는 원초적 자연, 사회생태주의의 변증법적 자연, 본질적/문화적 생태여성주의의 여신이나 어머니로서 자연을 모두 거부한다.<sup>114)</sup> 해러웨이는 「괴물들의 약속(The Promise of Monsters: A Regenerative Politics for Inappropriate/d Other)」에서 새로운 생태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연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물리적 장소도 아니며, 울타리나 독으로 에워싸서 보호해야 할 보물도 아니며, 구원하거나 침범해야 할 본질도 아니다. 자연은 숨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야 할 필요도 없다. 자연은 수학과 생체의학적 코드로 해독되는 텍스트도 아니다. 자연은 기원과 재생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타자”도 아니다. 어머니도 유모도 노예도 아니며, 인간이 재생산하는 모체도 자원도 도구도 아니다.<sup>115)</sup>

해러웨이는 자연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성물로 보고 있다. 그녀는 ‘자연문화(natureculture)’라는 하나의 단어로 자연과 문화의 이항대립을 붕괴시킨다. 그녀에 의하면 자연과 문화는 원래 하나였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분리된 것으로 계승되었다. 즉 인간은 과거 역사의 영향을 받으며, 현재의 노동, 자본, 위계질서, 생산성 등의 복잡한 체계들 속에 갇혀 있는 생물학 속에 들어 있다. 또한 과학은 과거의 역사일 뿐 아니라 동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여러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생물학은 역사적 담론이지, 세계 그 자체가 아니다.<sup>116)</sup>

인간은 자연 속의 일부분으로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미

114) 이귀우, 『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 49쪽.

115) 이귀우, 『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 49쪽 재인용(Haraway, Donna, “The Promise of Monsters: A Regenerative Politics for Inappropriate/d Other”, eds. Grossberg, Lawrence, Nelson, Gray, Treichler, Paula, *Cultural Studies*, New York:Routledge, 1992, 296쪽).

116) 해러웨이, 다나 J., 『한 장의 일사취침』, 민경숙 옮김, 갈무리, 2005, 13쪽.

래는 기술혁명을 통해서 인공과 자연, 기계와 인간을 더욱 더 하나로 연결시키려  
들 것이고, 더욱이 기술과학은 자본주의와 손을 잡고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생명  
공학사업으로 인간을 포함하는 생태계를 착취 파괴하는데 서슴없는 행동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인공과 문화를 부정하고 생명과 자연만을 따로 분리해내려는 시  
도들은 무의미해지게 된다. 인간이 자연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부장제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넘어서서 새로운 총체적인 세계관과 인간관이 필요하다.

새로운 생태여성주의는 여성주의 시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새로  
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여성들의 경험적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새  
로운 생태여성주의는 다양한 생태여성주의의 다름과 차이를 포용해야 한다. 인간  
은 늘 새로운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는 역사적 과정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  
속에서 자신들만의 방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만들어간다. 하지만 대안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다.

새로운 생태여성주의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사고와 언어를 바뀌어나  
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여성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경험들을 한다. 그러  
므로 여성주의 운동 역시 시대와 역사에 따라 정치적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현재 생명공학기술은 여성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와 생명체까지 상품화하고 있다.

새로운 생태여성주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과정의 언어로, 맞물리는  
매듭마다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새로운 생태여성주의는 사회  
학적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사회학적 성별(gender)의 대립적인 세계관을 넘어  
서야 한다. 둘째, 생태여성주의는 인간중심주의, 남성주의적 이원론과 같은 한정  
된 독단보다는 서로 다른 학문 간의 연계, 새로운 이론의 언어, 새로운 형태의  
연합된 정치 등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생  
태여성주의는 오늘날 기술과학 속에 숨어 있는 자본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사랑  
과 협동, 상호주의, 연대, 미래에 대한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돌봄의 태도 등의  
여성적 가치들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3) 생태여성주의 환경윤리

생태여성주의의 주요한 논지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지배체제에서 여성과 자연이 겹으로 억압받고 착취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해방과 자연보존은 지배체제를 변혁하는 것으로 이론과 실천의 총체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드라이제크(John S. Dryzek)는 “환경윤리는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이다. 이는 사상을 행동으로, 세계관을 운동으로 옮겨준다”<sup>117)</sup>고 한다. 생태여성주의는 여성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의 경험에서 이론이 만들어져 왔다. 다시 말해 생태여성주의에서는 여성운동의 실천적인 경험들이 여성주의 윤리학을 만들어내는 바탕이었다.

재거에 의하면 여성주의 윤리학은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는 전통적 윤리학을 비판하는 것에서 도출된다.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는 전통적 윤리학은 남성들에 의해 성립된 윤리체계로써 특정 그룹, 즉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는 인간을 위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는 남성에 의한 그들에게 통용되는 윤리관과 도덕체계였다.<sup>118)</sup> 여성주의 윤리는 새로운 영역인 생태주의적 윤리학과 마주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제한들로부터 힘과 추진력을 얻는다.<sup>119)</sup> 여성주의 윤리는 전통적 윤리체계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에 환경윤리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생태여성주의 철학자들은 윤리적 사상의 주류가 남성적 삶과 공적 영역과 관련된 보편성과 이성이라는 인간중심적 개념들에 의해 결정되는 윤리학을 만들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성의 삶과 몸 및 자연과 연관된 영역들로부터 나온 윤리적 개념들과 관행들을 소홀히 다루거나 평가절하 했음을 밝혀냈다.<sup>120)</sup> 즉, 여성주의 윤리학자들은 도덕이론에 실제로 성차(性差)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성별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행위원리로서 서구 전통을 지배해 왔던 행위 중심의

117) 드라이제크, 존 S., 『지구환경정치학의 담론』, 98쪽.

118) 조은수, 「지울스님의 생태운동과 에코페미니즘」, 『철학사상』 41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1, 140쪽 재인용.

119) 재거, 엘리슨 M., 『여성주의 철학 1』, 311쪽.

120) 재거, 엘리슨 M., 위의 책, 311쪽.



윤리체계들이 제시해 왔던 규범들이 실제로는 남성 편향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의 경험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워커(Margaret Urban Walker)는 산업화된 국가에서 권리, 의무, 복지에 대한 공적으로 권위 있는 담론들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편견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것들은 “활동 공간, 사회적 역할, 사회적으로 유리한 남성들과 관련이 있는 이상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남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아주 특권적 위치에 있는 남성들에게 적용되는 남성성의 규범을 반영하고 있다.”<sup>121)</sup> 여성주의 윤리학은 전통적 윤리학이 어떻게 여성들을 추상적으로 이상화하여 이론적 형식으로 표상해 왔는지 분석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생태여성주의는 그 이론과 실천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모두가 여성에게 잠재하고 있는 힘과 윤리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돌봄, 배려, 협력, 감성, 직관 등을 여성적 원리라고 한다면 경쟁, 독단, 합리성, 공격성 등을 남성적 원리일 것이다. 이런 남성적 원리가 여성과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 가부장적 문명의 의한 여성과 자연의 파괴성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면 생태학은 온전한 생태학이라고 볼 수 없다.

천성산 도롱뇽 보호논란으로 잘 알려진 지울스님은 합리성의 윤리를 넘어서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하는 배려와 존중의 여성주의 윤리를 제안하면서 그것에 눈뜰 것을 요구한다.<sup>122)</sup> 지울스님은 한 생명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지구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영향을 인간 역시 피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도롱뇽 소송을 시작했다. 그는 위기의 지구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여성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선조들의 오랜 지혜와 지식으로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모든 생명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sup>123)</sup>

체니(Jim Cheney)는 관계와 동일성으로부터 나타난 맥락 중심적이며 서사적 형식의 새로운 윤리학적 접근에 찬사를 보내며 생태여성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21) 재거, 엘리슨 M., 『여성주의 철학 2』, 한국여성철학회 옮김, 서광사, 2005, 58쪽.

122) 조은수, 「지울스님의 생태운동과 에코페미니즘」, 146쪽.

123) 지울, 『초록의 공명』, 삼인, 2005, 206쪽.

도덕적으로 말해서 인간에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비인간 세계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내기 위한 고도의 맥락적 시도를 포함한다. 즉, 우리가 비인간적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염려와 관심 그리고 반응을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한다. (...) 도덕적 배려의 한계는 인간의 (혹은 종(種)이나 공동체의)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 의해 설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차례로 자신의 인간 도덕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비인간 세계 혹은 세계의 구성원들에 대한 관계와 이해의 깊이와 명확성의 정도를 표현하게 된다.<sup>124)</sup>

생태여성주의의 환경윤리는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를 회복하기 위해 전통적 윤리학을 비판하는 한편,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길잡이가 될 것이다. 생태여성주의는 가부장제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즉, 지속적으로 인간세계의 필요와 그것을 돌봐온 여성적인 능력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것을 주장한다. 결국 지구환경의 위기는 인간성의 위기이며, 생태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윤리성의 회복, 도덕적 회복의 문제로 귀결된다. 나아가 생태여성주의 환경윤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감정을 느끼는 생명종뿐만 아니라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비생명체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지닐 것을 요구한다.

---

124) 다이아몬드, 아이린 외, 『다시 꾸며보는 세상』, 238쪽 재인용.

## IV. 생태여성주의의 의의

### 1. 여성학의 이론적 확장

#### 1) 여성주의 연구방법론

여성주의 운동<sup>125)</sup>에서 발전한 생태여성주의는 역사는 짧지만 학자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태여성주의 이론을 정식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미즈(Maria Mies)에 따르면,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와 학문의 남성적 시각에 대응하여 발전해온 여성운동에는 끊임없이 이론, 전략, 전술을 정식화할 과업을 책임지는 이론적 중심이 없다.<sup>126)</sup> 여성주의 전망은 여성운동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정식화가 총체적인 메타 여성주의 원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생태여성주의 연구의 토대가 되는 여성학의 이론적 확장의 토대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생태여성주의 운동의 모든 정치적 행동과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법론적 원리를 미즈의 연구방법론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sup>127)</sup>

첫째,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연구(연구 대상에 대한 중립과 무관심)라는 기본요건은 의식적 편향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식적 편향은 단순한 주관주의나 감정이입과는 다르다. 연구 대상에 대한 부분적 동일시를 기본으로 연구자와 대상 간에 비판적 거리를 둬으로써 연구자와 연구대상 양측의 왜곡된 인식을 수정하고 쌍방의 의식을 넓혀주는 것이다.

둘째, 위로부터의 시각에서 ‘아래로부터의 시각’으로 전환이다. 체계적인 ‘아래

125) 여성학은 여성주의 운동을 기초로 한 실천학문이다. 여성주의는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른 불평등 관계의 인식과 시각을 제공해주는 거시적인 이론 틀이며 성평등(gender equality)사회를 지향하는 여성해방의 실천적 의지를 담은 이념이다. 이런 이념을 기반으로 여성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여성운동이다. (사)한국여성연구소 지음, 『새여성학강의』, 17쪽 참조.

126) 미즈, 마리아,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428쪽.

127) 미즈, 마리아 외, 『에코페미니즘』, 55-72쪽 참조.

로부터의 시각'이 지니는 윤리·정치적인 의미는 과학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이들을 분리한다면 여성학에서 이론 모든 방법론적 혁신들이 다시금 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나아가 여성문제를 기성학문과 연구정책 내부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연구의 영역과 목적에 관한 새로운 지향을 세우기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

셋째, 적극적인 참여행동과 투쟁이 곧 연구이다. 사변적이고 관찰적인 지식은 여성해방과 자연보전(preservation)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투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체제로서 가부장제에 투쟁하는 여성학자라면 그들의 연구를 거리로 가지고 나와서 운동의 사회적 행동과 투쟁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운동에 대한 그들의 공헌이 자신의 이론적·방법론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나아가 연구가 여성해방을 위한 사회적·정치적 행동으로 통합된다면 지식과 실천의 변증법은 더 나은 현실적인 이론이 될 것이다.

넷째, 현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과학적 탐구의 출발점이다. 여성들은 '위기의 경험'과 정상상태가 파괴되었을 때, 평소에는 거리를 두지 못한 채 하나의 대상으로서 침잠해 있던 실제적인 사회관계와 대면하게 된다. 자신의 진정한 상황에 대해 의식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사회적 행동과 투쟁에 참여하면서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현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과학적 탐구의 출발점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연구과정은 여성의 의식화 과정이다. 연구과정은 '연구주체'에게나 '연구대상'에게나 '의식화'과정이어야 한다. 그 이전의 여성운동에서는 의식화과정을 대체로 여성으로서 각 개인의 고통을 자각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그래서 강조점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사회를 지배하는 사회관계보다 집단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역동적으로 배우는 행동이나 관계에 있었으며, 의식고취 모임들은 모든 지배관계를 심리학적인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프레이리(Paulo Freire)가 처음 개발한 문제정식화 방식(problem-formulating method)에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억압적인 사회관계의 한 표현이자 발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문제정식화 방식은 여성의 의식화를 여성해방 행동을 위한 주체적 선결조건이라 본다.

여섯째, (문제정식화 방식을 통한) 여성의 집단적 의식화 과정은 개인적·사회

적인 역사에 관한 연구와 병행해야 한다. 이것은 여성학을 연구하는 여성들이 운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는 다시 그들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더 이상 개인적 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그것을 집단적인 것으로 만들고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함을 함축한다.

일곱째, 여성들 자신의 경험을 집단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성학은 남성 학자들 간에 팽배한 개인주의·경쟁주의·출세주의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여성들은 자신의 역사를 전유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성주의의 과학에 대한 비판은 초기에는 주류 사회과학을 향한 것이었지만 자연과학과 그 핵심적 패러다임, 근저에 깔린 세계관, 그 인류학과 그 방법들과 응용에까지 미친다. 이 비판은 애초에 연구소나 대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환경·평화·여성운동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생식기술이나 유전공학에 반대하는 운동과 연계되어 생겨났다. 더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이런 운동에 참여할수록 군사주의와 가부장제, 자연에 대한 기술적 파괴와 여성에 대한 폭력, 자연의 착취, ‘이(異)민족의 착취, 남녀의 위계관계 등이 점점 더 뚜렷해졌다.

여덟째, 과학기술의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 대중들은 오늘날 과학기술이 파괴적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과학기술의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도덕기준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이를 거부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자들은 그들의 방법론과 성과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깨닫지 못함이 분명하다. 과학기술자들이 지구 위의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그들의 생식기술이나 유전공학에 대한 연구나 응용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 2) ‘여성성’의 재해석

빌(Janet Biehl)은 1970년대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이 성(sexuality)의 해방을 부르짖고, 이를 위해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남성과는 다른 생물학적 차이로 강조한 것을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한다. 여성의 생물학적 구조를 ‘여성성’으로 잘못 규정하여 여성이 선천적으로 ‘돌봄’, ‘양육’의 자질을 타고난다는 것은 하나의 편견이며, 실제 역사적으로 가부장제의 억압기제로 이용되었다고 강조한다.<sup>128)</sup>

그러나 ‘여성성’은 여전히 대지, 고향, 생명 등의 은유와 상징을 통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강조하며 여성이 수동적이고 감성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생태여성주의자들조차도 상호연결성의 측면에서 자칫하면 여성적 가치를 강조하는 모순을 보일 수 있다.

미즈(Maria Mies)와 빌(Janet Biehl)의 입장은 ‘여성과 자연’의 연관관계를 실제 여성의 삶과 자연·환경의 연관 속에서, 그리고 보다 넓게 정치·경제 구조의 맥락에서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sup>129)</sup> 그러나 환경운동이라는 실천적 차원에서 ‘여성성’은 사회적 성역할로 인한 제약이 따른다. 즉, 사회적으로 여전히 여성의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으로 보고 환경운동에서 역으로 성별 분업을 고착화하는 모순을 일으킨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생성·소멸되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온 ‘여성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여성의 환경운동과 관련해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는 자연과 여성을 겹으로 지배하며 파괴해왔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에게 기형아 출산의 우려와 난자 판매, 피임약 임상실험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안겨준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환경문제에 민감해지고 이를 절박하게 해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어머니 대지’와 같은 비유에서 보이듯 생명력과 보호, 양육의 의미가 강조되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성’을 생태위기의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가?

리치(Adrienne Rich)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으로서 ‘여성성’과 이데올로기적 담론체계로서 ‘여성성’을 구분한다. 전자는 모든 여성이 잠재적으로 출산에 대한 능력이 있고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여성적인 능력을 남성들이 마음대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30)</sup> 후자의 미화된 ‘여성성’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여성들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만이 돌보는 것을 감당하도록 한다. 따라서 여성은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

둘째,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들을 하나의 ‘여성’이라는 그룹으로 규정한다

128) Biehl, Janet, *Finding Our Way. Rethinking Ecofeminist Politics*, 11쪽.

129) 강수영 외,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평가와 전망』, 여성과사회, 1996, 76-77쪽.

130) 리치, 아드리엔느,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1995, 9쪽.

다. 따라서 인종, 계급, 나이, 성적경향 등에 따른 다양한 여성들의 삶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셋째, 인간에 의한 자연훼손의 문제가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가부장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화된 ‘여성성’은 가부장제 안에서 공고하게 뿌리내린 모성이데올로기이다. 조성숙은 모성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 홀로 책임져온 모성 역할을 남성 및 사회, 국가가 공유하며, 보살핌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규범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31)</sup> 그러나 모성이데올로기는 오랫동안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나뉘은 고정된 관념 때문에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다. 조한혜정은 잘못된 ‘여성성’ 이데올로기로 인한 ‘도구적 모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 가족만의 것을 추구하던 것에서 이웃, 지역사회, 국가적 모성으로 확대되어 가는 ‘사회적 모성’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sup>132)</sup> 하지만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국가적 모성은 ‘도구적 모성’의 한계를 지닐 개연성이 크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여성운동의 결과,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많이 개선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성성’은 강조되고 강화되고 있다. 특히, 잘못된 ‘여성성’은 자식을 경쟁우위에 세우기 위해 걸음마를 떼자마자 조기교육을 시키고 원하는 것은 모두 사주면서 대리만족을 한다. 이러한 ‘여성성’을 무비판적으로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려는 현실들에서 ‘여성성’이란 개념 자체를 의문시하게 된다.

생명과 돌봄의 가치는 여성 고유의 가치가 아니라 인간 모두가 함께 개발해야 할 가치이다. 따라서 여성에게 전가된 자녀양육의 몫을 남성과 나눌 때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돌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황선애는 남녀를 불문하고 교육을 통해 돌봄의 ‘생태적 감수성’을 개발하는 의식의 변화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33)</sup> 이는 근원적인 생명의 가치를 통해 ‘여성성’이 환경문제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여성운동이 지향하는 성별분업의 타파라는 중요한 관건과도 연결된다.

131) 조성숙, 『‘어머니’라는 이데올로기. 어머니의 경험세계와 자아 찾기』, 한울아카데미. 2002, 114쪽.

132) 조한혜정,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또하나의문화, 1998, 141-176쪽.

133) 황선애, 『생태여성주의와 생태여성주의 문학비평-문제점과 전망』, 11쪽.

### 3) 자기결정의 모순 제기

여성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구 중 하나는 여성의 신체와 삶에 대한 자율성이다. 이것은 다양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을 통해 주장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자율성이란 개념은 유토피아적 요소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성의 몸은 남성들에 점거된 소유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자기결정권이란 개념을 사용하려면 이 개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여성들에게 자기결정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둘째, 여성의 자기결정권 운동이 여성의 해방으로 이어졌는가이다. 우선 서구의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국제적 인구조절기구의 인구를 줄이기 위한 개입에 대해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정치적·지적으로 거리를 둘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여성들에게 이러한 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아크페르(Farida Akht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서구 페미니스트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여성의 생식권이나 자기 신체에 대한 통제와 같은 개념이 대다수 방글라데시 여성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가난과 저개발의 과정은 그들의 삶을 만성적 굶주림으로 인한 아사 직전 상태까지 몰고 갔다. 생존의 본능이 해방을 향한 충동을 압도하였다. 난관결찰 수술이 이루어지는 방글라데시의 단산캠프와 병원에서 여성들은 생식의 책무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개의 경우 유인책으로 제공되는 돈과 ‘사리’라는 옷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훼손을 받아들인다. 돈과 사리는 식량과 교환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생존능력에 보탬이 된다. 어디서든 여성의 권리는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sup>134)</sup>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방글라데시 사례와 같이 제3세계 여성들에게는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에 대한 국제자본주의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억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신체에 대한 통제’ 혹은 ‘여성을 위한 생식권’에 대한 요구들을 부르짖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근대복지국

134) 미즈, 마리아 외, 『에코페미니즘』, 273쪽 재인용.



가의 안전망이 없는 ‘제3세계’ 여성들에게 개별적 자기결정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보호망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3세계의 여성들에게 자기결정권 투쟁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운동과 관련하여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가 새로운 투자 영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여기에 미국의 몇몇 여성주의자들이 요구한 ‘낙태권’이 ‘대안적 생식선택권’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앤드류스(Lori B. Andrews)는 『1990년대의 생식법률 편람』에서 ‘생식대안’, ‘생식자율성’, ‘생식선택권’ 등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자기결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 개념들은 기업과 의사들에 의해 여성의 생식력과 육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된다.<sup>135)</sup>

앤드류스는 자유주의적 입장과 생명권운동(Right-to-Life Movement) 주장 사이에 있다. 그녀는 인간의 신체, 특히 생식기관들이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곧 ‘생식자율성’이란 여성의 몸을 나누어 팔거나 임대하는 등의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생명권운동은 태아가 법률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인간이며 임신한 여성의 임의적 간섭행위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한다. 어느 입장에서든 여성의 생식기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 즉 자본축적을 위해 모든 사물과 생명체들을 상품화시키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가져왔던 자본주의 체제이다.<sup>136)</sup> 앤드류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인간을 팔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나누다보면 궁극적으로 판매를 하는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 즉,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할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한 자기결정권의 모순은 여성의 생식권을 위한 ‘생식권에 관한 지구적 네트워크’의 주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생식과 성의 문제를 법률적인 문제로 바꾸어 놓았다. 생식권은 출산을 장려하는 생식기술뿐만 아니라 출산을 억제하는 생식기술에 의해서도 증진될 것으로 이해된다.<sup>137)</sup>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여성들은 자기결정의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은 새로운

135) 미즈, 마리아 외, 위의 책, 255쪽.

136) 미즈, 마리아 외, 위의 책, 267쪽.

137) 미즈, 마리아 외, 위의 책, 274쪽.

생식기술에 반대한다면 낙태도 반대해야 하는 것이 된다. 반대로 여성들이 낙태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한다면 ‘생식대안’을 택하기로 결정한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은 여성주의자들이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남녀관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주장되었으나 생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앤드류스와 같은 전문가들은 자본의 우위에 서있는 자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바꿔 놓았다. 자기결정권이 여성들의 생식잠재력으로부터 ‘해방’이나 수동적인 여성의 본성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면, 남성들은 성적 접촉의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진다. 게다가 여성들은 생식기술에 의존해야 더 안전한 피임이나 출산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된다. 미즈(Maria Mies)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여성들은 몇 가지 경구피임약, 나선형 장치, 자궁 내 삽입기구, 페서리, 낙태 사이에서 ‘자기결정하는’ 선택권을 갖는다. ‘타이드(Tide)’와 ‘올(All)’이란 제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제3세계’에서의 인구조절정책은 점점 더 ‘사회적 마케팅’ 방식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 여성들은 분홍·초록·황금색 알약 중에서 선택할 권리를 허용받음으로써 ‘자기결정’과 ‘선택의 자유’에 대한 환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여성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피임도구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처럼 자기결정이란 실제로는 ‘슈퍼마켓에서 선택할 자유’로 축소되었다.<sup>138)</sup>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동조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여성주의자들이 여성해방을 위해 투쟁해온 자기결정권을 자본의 이익을 위한 상술로 바꿔놓고 말았다. 결국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이란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정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성주의자들은 자기결정권이란 개념을 단순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기술적 가부장제가 여성의 몸을 생명공학산업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관조해서도 안 된다. 여성들은 기술적 가부장제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어머니세대와

138) 미즈, 마리아 외, 위의 책, 283쪽.

의 친밀한 관계, 육체로부터 초월하는 삶이 아닌 자신과의 내적인 연결과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여성주의가 비판해온 현실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 2. 여성주의 실천 방향 제시

### 1) 생태적 삶의 실천 방법

쉬바(Vandana Shiva)는 “실천과 이론이 존중되고 보존되는 새로운 비전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지구의 동료 피조물을 위한 민중운동의 생존투쟁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새로운 시각을 자급적 관점, 혹은 생존적 관점이라 부른다.<sup>139)</sup> 이를 통해 파괴적인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난관으로부터 생명체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데, 자급노동은 모든 생산관계에서 생존의 선결조건이다.

여성들이 근대적 개발과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에 더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여성에 대한 더 심한 폭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남성이 주도하는 경제영역(원료채취 및 생산)과 정치영역(과학적 개발 정책)에서 파괴된 환경오염의 결과들을 몸으로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여성에 대한 폭력과 자연에 대한 폭력 사이의 연관을 깨닫게 된다.<sup>140)</sup> 여성들은 부유한 나라에서든, 가난한 나라에서든 어떠한 형태로든 남성에 의해 식민화된 삶을 살아간다. 여성들은 정치·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 특히, 환경오염은 여성들로 하여금 질병, 기형아 출산 등을 통해 자신들의 몸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도록 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생태적 삶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을 토대로 자급기반을 온전히 보존(conservation)하고자 한다. 자급적 관점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39) 미즈, 마리아 외, 위의 책, 365쪽.

140) 미즈, 마리아 외, 위의 책, 374쪽 참조. 인도의 펀자브지방의 녹색혁명은 더 부유해지면서 지참금문제로 여성이 살해되는 사례가 늘어났고, 양수검사 후에 여자태아를 죽이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1) 경제활동의 목표는 생명의 창조, 혹은 재창조이다. 즉 상품구입이 아니라 사용가치의 생산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기본적 인간욕구의 충족이다. 특히 식량과 다른 기본 필수품의 자급, 지역성 등이 주된 경제원칙이다. 지역의 자원은 착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되며, 시장은 종속적인 역할을 한다.

(2) 이러한 경제활동은 새로운 관계에 근거를 둔다. ㉔자연과의 관계는 자연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그 자체로, 그리고 지구의 모든 생물체가 생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존중된다.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은 존중과 협력과 상호성을 바탕으로 한다. ㉕자급적 관점은 믿을 수 있고 안정된 인간관계에서 실현될 수 있다.

(3) 자급적 관점은 참여민주주의 혹은 풀뿌리민주주의에 토대를 두며 또한 그것을 고무한다. 비단 정치적 결정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적·사회적·기술적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선거로 뽑은 대표자들만이 아니라 공동의 실천을 통해 모두가 정치적 책임과 행동을 떠맡아야 한다.

(4) 자급적 관점은 사회문제(가부장적 관계, 불평등, 소외, 빈곤)와 환경문제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의 상호연관성, 그리고 모든 문제와 모든 해결책들의 상호연관성은 생태여성주의의 주요 통찰 중의 하나이다.

(5) 자급적 관점은 과학·기술·지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여성과 민중에 기반을 둔 그러한 풀뿌리 지식과 과학은 오래된 생존지혜와 전통을 재평가할 것이며 근대적 지식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기술과 생존기반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6) 자급적 관점은 문화와 노동의 재결합, 그 주된 목표는 행복과 충만한 삶이다. 문화는 전문적인 엘리트들에게만 한정된 특수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으로, 그것은 불로소득을 약속하지 않으며 노고와 눈물 없는 삶을 약속하지도 않는다.

(7) 자급적 관점은 물이나 공기, 쓰레기, 토양, 자원 등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혹은 상업화) 하는 데 반대한다. 대신 그것은 이러한 자연의 선물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을 기르며 그것들을 보전하고 재생시킬 것을 요구한다.

(8) 자급적 관점에서 성별분업은 폐지되어야 한다. 남성들은 현실적인 견지에서 가사노동, 어린이와 노약자 돌보기, 지구를 치유하는 환경 작업, 새로운 형태의 자급 생산 등 무임금의 자급노동을 분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9) 자급적 관점은 '윤택한 생활'의 토대를 자연과 이민족의 착취와 지배에 두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 사회만이 자연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으며 국가와 세대와 남녀 간의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10) 자급적 관점은 기존의 이윤·성장 지향적 패러다임과 양립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sup>141)</sup>

이와 같은 자급적 관점이란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실천적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자급적 삶을 위해 수렵생활을 하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책임지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들의 생존지혜를 되살려 지구적 생태위기에 책임지는 삶이고, 성별에 따른 노동을 분리하지 않고, 생태계의 재생 순환하는 흐름이 온전하게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유한한 자원을 적게 소비하는 것을 지향하는 삶이다.

## 2) 생태적 삶의 실천 사례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반대하여 투쟁을 하고 있다. 독일의 핵발전소 반대운동, 히말라야의 백악(chalk) 채굴과 벌목 반대운동, 케냐의 그린벨트 운동, 일본의 상업적 농업에 반대하여 자급적인 생산자·소비자 연결망을 구축하려는 여성들의 운동, 에콰도르의 물고기와 새우의 터전인 맹그로브 숲을 살리기 위한 빈민여성들의 노력, 그리고 더 나은 수자원 관리와 기업주에 맞서 생존의 토대(숲, 연료, 사료 등) 등을 지키기 위해 세계 도처의 많은 여성들이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sup>142)</sup> 이들은 여성주의자가 아니더라도 환경파괴에 반대하며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201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리우환경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여성 지도자들이 활약한 성공실천 사례를 뽑아서 ‘리우+20 여성 우수 실천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유사한 사례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는 여성들이 주도하는 5개 영역(식량주권, 기후변화에의 적응, 적당한 직업과 건강, 수자원과 위생, 지속가능 에너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기본적인 5가지 영역에 참여한 여성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자연적 균형과 생물다양성도 회복하도록 하였다. 특히 여성들은 시민권과 여권 가족계획, 읽고 쓰기, 보건위생, 성병과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 성별

141) 미즈, 마리아 외, 위의 책, 391-394쪽 참조.

142) 미즈, 마리아 외, 위의 책, 12-13쪽.

(gender)화 된 폭력, 남성들에 의한 폭력 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초기에 교육받은 여성들을 대표자로 뽑아 지역 내의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지방예산 수립에 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sup>143)</sup>

한국에서도 생태여성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들이 이어져 왔다. 이를테면 지울의 천성산 터널 반대 사례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의 토종씨앗 지키기 사례를 들 수 있다.

고속철도를 개발하기 위한 천성산 터널의 건설을 반대하는 지울의 ‘초록의 공명’ 운동은 인간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연대해서 자연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지울에 의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생명종이라도 사라진다면 지구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고속철도를 건설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보다 생명 에너지의 연결을 지킴으로써 얻는 가치가 더욱 크다. 이에 그녀는 많은 생물들을 대표하여 도롱뇽을 원고로 하여 자연의 권리 소송을 하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였다. 이 외에도 글쓰기, 영상물 제작, 도롱뇽 조각보나 걸개그림을 만들기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태운동에 평화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44)</sup> 생태운동은 지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간 외의 생명들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것을 막듯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과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로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에 동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타고난 공감능력을 되살려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전여농 소속 여성농민들은 유전자조작식품(GMO)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성농민들이 보전해 온 토종씨앗의 의미와 여성농민의 토착지식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여성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과 ‘우리텃밭사업’을 전개하였다.<sup>145)</sup> 전여농의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과 ‘우리텃밭사업’ 과정에서 토착여성농민들과의 연대의 경험은 토종씨앗과 지식을 재구성하여 생활정치화 하는 동시에 토착여성농민들이 보전해 온 씨앗과

143) 이희영 번역, 『2012년 ‘리우+20 여성 우수 실천상’』, 여성환경연대 자료집, 2012 참조.

144) 지울, 『초록의 공명』, 207쪽 참조.

145) 김효경,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을 통해 본 여성농민의 토착지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논문, 2010, 116쪽.

지식의 가치를 다시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농민의 토착지식은 의·식·주 전 활동에 걸쳐 있는 통합적 성격을 가진다. 그들의 토착지식은 경험에서 체득된 것으로 공동체 문화로 기반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지식과 기술은 자연환경을 토대로 하는 생태 순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여성농민들의 운동은 제철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고, 여러 대안농업 운동 관련 단체로 확산되고 있다.<sup>146)</sup>

생태여성주의의 실천은 자신과 인류의 생존을 걱정하는 윤리적 실천이다. 이러한 윤리적 실천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천되고 있다. 과거 여성들은 삶속에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를 세대 간에 전수하며 그 지혜를 이어왔다. 이러한 가치는 소비자본주의 체제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지구적 위기는 과거 여성들의 생태적 지혜를 연결해야만 한다. 여성들의 생태적 지식은 생태여성주의 운동에 의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대안 지식으로 재조명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투쟁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급적이고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다.

### 3) 생태적 평화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원한다. 그 중에서도 삶터에 대한 안전과 평화는 최우선 순위에 뒤야 한다는 인식을 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겐 이런 욕구는 당위적 사고에 그쳐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남성들은 여성과 자연을 타자로 만들어 노예화하여 착취하며 급기야는 생태계의 위기를 몰고 왔다. 여기에는 남성들을 추종하는 여성들 또한 크게 한몫을 해왔다. 게다가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탐욕이 우선시 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연대가 파괴되고 공유된 정체성이 무너지면서 인간 소외와 지구환경의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대의 인간소외와 지구환경의 위기의식은 붕괴되기 이전의 공동체를

---

146) 김효정, 위의 글, 117-119쪽.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현대의 공동체의 의미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지역의 단위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뜻을 함께하며 투쟁하는 이데올로기의 특성을 의미하는 하기도 한다. 이런 공동체의 다양한 의미는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간의 생존방식이며 삶의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생태공동체는 현대 기술문명이 파괴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생활양식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은 모두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집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는 그들의 행동을 조직하고, 필요하다면 정치적 과정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운동이나 투쟁으로 공동의 이익과 정체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는 풀뿌리 행동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는 상황에 따라 일부 혹은 다수에 의해 공동체가 좌우되기도 하고, 조직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는 상호간에 갈등을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접근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추구하는 친밀한 관계가 일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적 공동체는 비공식적인 자급경제를 토대로 한 것으로 잘 이용된다면 생산·나눔·교환 형식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의 공식 경제에서 요구하는 노동량을 따라잡느라 애쓸 필요도 없을 것이며, 자급적인 생태공동체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본다. 게다가 공동체가 지역의 자원을 필요한 만큼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모델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생태적 공동체는 과거로 돌아가 흙을 일구며 땅과 함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이 장소적 의미의 공동체든 공동의 이익이나 정체성과 결합된 공동체든 상관없이 실행은 공동체 안에서의 행동주의를 기초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변혁은 아래로부터의 관점으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래로부터 건설은 소규모의 공동체와 관련해 발생하는 쟁점에 한정되지 않는다. 좀 더 넓은 일반적인 쟁점을 둘러싼 지역적 연대행동은 사회적 지도 원리에 의해 이끌어지는데 이런 직접 행동은 역량강화와 새로운 요소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 예를 들면 1974년 남서부 독일의 빌(Why)원자력 발전소 반대운동에 참여한 여성농민들은 반핵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가부장



적 남녀관계에 눈뜨게 되었으며, 많은 여성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해방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되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투쟁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서로 연결하게 된다.

생태여성주의는 지구적 생태위기로 인한 시대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 개개인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생태계, 자연에도 존재하는 내재적 가치를 인식한다. 또한 그들은 규모가 작은 민주적 평화 공동체가 책임감 있게 행동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수용한다. 그러나 생태공동체는 적게 소비하고 또 과학의 편리함이 주는 파괴적인 양면성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 가난을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은 필연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갈등이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더 차원 높은 성숙한 사회적 인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생태여성주의는 생태적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의 삶의 경험들로 축적된 옛 지혜를 되살려 왔다. 여성들은 그런 상황들을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연대하며 견디어 내는 지혜를 터득하였다. 그녀들의 지혜는 억압, 차별, 착취의 고통과 절망에서 생존하기 위한 용기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용기는 지구환경의 위기를 감지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서 현재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자신과 이웃의 변화를 모색하며, 자신과 이웃과 나아가 지구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이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과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온몸으로 절실하게 느끼며 책임지려는 실천의 노력들을 해왔다. 그 중에 생태적 평화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생태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 3. 환경문제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 도입

#### 1) 여성의 모임과 의식화

생태여성주의는 하나의 정치적 운동으로서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관념과 역할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왔다. 이들은 환경위기야말로 새롭게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다. 그들은 정치적 변화를 구성하고 있는 생각들을 생태계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통해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다.

생태여성주의가 여성운동에서 출발할 때 가장 큰 힘을 얻은 것은 여성의 의식화 운동이었다. 여성의 의식화 운동은 1960년대 중반 프리단(Betty Friedan)의 『여성의 신비』가 분기점이 되어 여성운동으로 이어졌다. 여성들은 소집단으로 모여 개별적인 성차별의 경험을 털어놓았고, 모임에서 힘을 받은 여성들은 글을 썼으며 이러한 글들을 모아 이후 책으로 편집했다.<sup>147)</sup> 이러한 의식화 운동에 대해 김민예숙은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리하였다.

의식향상이란 개인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무의식 상태에 있거나 스스로 숨겨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실을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의식화 훈련은 개인의 인식능력을 확장시켜 현재의 사회문화적인 상황에서 여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각하게 하는 과정이다. 즉, 여성에게 무심코 행해지는 일상적 행위들에 대해서 느낌을 찾고, 그것을 여성 각자는 어떻게 느끼는가를 언어로든 몸으로든 표현해냈을 때, 각각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공감하게 되고 그 일상적 행위들이 ‘무엇’ 때문에 ‘왜’ 일어나는지 알게 되는 과정이다.<sup>148)</sup>

여성의 모임과 의식화 운동은 여성 내면의 변화와 더불어 남성중심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유기적으로 확산된다. 즉, 여성들의 모임은 생명의 씨앗에 뿌리를 내리고 그 씨앗에 새로운 모임

147) 볼린, 진 시노다, 『우리 속에 있는 지혜의 여신들』, 21쪽.

148) 김민예숙 외,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역사, 실제, 방법론』, 한울아카데미, 2005, 213쪽.

이 자라도록 한다. 남성중심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모임의 힘은 그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들로부터 시작된다.

볼린(Jean Shinoda Boulton)에 의하면 지혜로운 여성들의 모임(circle)은 그것 자체가 원(circle)의 형태이다. 존경받는 노인들이나 할머니, 집안의 어머니들이 원을 이루며 한데 모여 있는 모습이 보여주듯 어느 한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을뿐더러 모두가 공동체의 행복을 염려한다. 여성들의 모임은 구성원들의 집단적 지혜로움을 구현하고 있으며, 여성의 지혜를 문화와 연결하는 잠재력을 가진 원형이다.<sup>149)</sup> 여성들의 모임은 그들의 지혜로움과 권위로 존경받던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도록 도와준다. 설령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이나 삶의 방식에 여전히 존재하면서 다시 기억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것을 찾으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것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

볼린은 의식화 집단의 핵심적인 생각에 대해 “당신의 개인적인 진실을 말하라, 다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라, 어떤 주제가 공유되는지 보라, 그러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란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sup>150)</sup>라고 말한다. 즉, 여성들이 함께 행동할 때 변화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모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성운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매애에서 나오는 힘이다.

여성들의 모임과 의식화 운동은 이후 여성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회복운동으로 확산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기 회복 집단의 중심 소재는 정서를 마비시키는 물질 중독과 동반에 대한 의존이었다. 삶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화 운동과 회복운동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고통스러운 가족 패턴을 반복했는지, 어떻게 교회와 사회가 자신들에게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도록 요구했는지 알게 되었다.<sup>151)</sup> 1980년대 일반 여성들이 주도한 여성운동은 심리중심으로 정치성은 띠지 않았으며 자연, 여성의 몸과 지구라는 성소에 대한 경외, 여러 형

149) 볼린, 진 시노다, 『우리 속에 있는 지혜의 여신들』, 267쪽.

150) 볼린, 진 시노다, 위의 책, 270쪽.

151) 볼린, 진 시노다, 위의 책, 270쪽.

태의 여신의 영성을 되살리기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다. 1990년대 암환자 지지 집단, 특히 유방암 치료집단은 여성 모임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고통을 받았건 그것을 겪어낸 이들로 이루어진 모임에는 치유능력과 도움을 줄 능력이 잠재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집단의 영향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안에 소속될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경험들은 여성들의 지혜를 다시 일깨워주어 가족과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다만 모임에 들어간 여성들은 삶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집단 안에서 체험하면서 내부의 치유력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볼린에 의하면 스위스 심리학자 융(Carl Gustav Jung)이 정신세계의 선천적 가능성이라고 본 집단무의식의 원형(archetype)을 통해 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택한 역할이 외부의 기대보다는 우리 안에서 활성화된 원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그 선택에는 깊이가 있다. 우리가 의미를 추구할 때 이 원형이 관여하기 시작하는데, 이 원형을 융은 자기(self)라 불렀다. 볼린은 자기(self)를 “우리가 경험하는 신성하고 영적인 것을 총칭하는 용어로 이해한다. 그것은 개인의 가치나 고결함, 특히 우리 각자 진심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상관있다”<sup>152)</sup>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그 선택에 따라 삶이 구성되고 우리는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녀에 의하면 융 학파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의 심리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과 그 문화의 틀에 박힌 관례에서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같은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두 개의 시각영역을 통합하여 깊이 있는 관점을 얻듯이, 여성주의자들은 집단무의식의 원형을 확인하고 문화가 무엇을 보상하거나 벌하는지를 인식한

---

152) 볼린, 진 시노다, 위의 책, 17쪽. 융은 모든 사람에게 이성적 원형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에게는 아니무스가, 남성에게는 아니마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사고력, 공격성, 영성은 그녀의 아니무스가 가진 속성인데, 이는 여성적 자아(ego)보다는 정신세계(psyche)의 인식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덜 중요하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아니무스 사고력은 선천적으로 열등하다. 이런 구조로는 아테나 혹은 사고 능력이 월등한 여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융의 아니마-아니무스 이론에 따르면 남성에게 감정이나 인간관계는 인식 부분을 덜 차지하는 아니마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경우 감정에 특히 민감한 남성들 역시 예외적인 존재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힌다.

다.<sup>153)</sup>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애 초기에 인식할 수 없었던 깊은 통찰을 할 수 있다. 무의식의 원형은 씨앗과 같아서 모든 사람 안에 처음부터 있다. 다만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것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어떤 것은 휴면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의식의 원형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들 내부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던 것이다. ‘아하!’ 하고 깨달으면 이제 막 깨달은 원형의 기운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의식의 차원에서 생긴다.<sup>154)</sup>

여성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샘솟듯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것에 이름 붙이게 되고, 물꼬가 터지기만 하면 그 잠재력은 영성, 지혜, 자비, 실천의 샘이 된다. 또한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본성인 연민으로 돌아가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연과 더불어 어떻게 진화해가야 하는지 물음을 던지고 행동하도록 할 것이다.

## 2) 여신의 은유와 상징성 부활

오늘날 생태계 그물의 훼손으로 인한 지구적 위기상황은 여성들로 하여금 지구환경에 대한 무책임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생태여성주의는 파괴된 지구를 살려내기 위해 고대여신의 문화와 상징에서 영감을 받았다. 여신의 신성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우주 전체의 한 부분임을 상징한다. 스프레트낙(Charlene Spretnak)은 모든 생명의 상호연관성이 관습적인 남성주의가 아닌 고대 가부장제도 이전의 문화들에 담겨 있으며, 현대의 인간과 인간의 사이도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sup>155)</sup> 대기 화학자인 러브록(James Lovelock) 역시 지구를 살아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있는 가이아론을 전개한다.<sup>156)</sup>

종교 역사가 엘리아데(Mircea Eliade)에 의하면, 신화는 “각 사회의 가치관이나 구조,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훌륭한 기준이며 관습, 종교의식, 신앙의 영적 토대가 된다.”<sup>157)</sup> 신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끊임없이

153) 볼린, 진 시노다, 위의 책, 22쪽.

154) 볼린, 진 시노다, 위의 책, 300쪽.

155) 다이아몬드, 아이린 외, 『다시 꾸며보는 세상』, 20쪽.

156) 러브록, 제임스, 『가이아』, 홍욱희 옮김, 범양출판부, 1990.

순환하는 시간 개념이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세계의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는 반면,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시간은 끊임없이 순환한다. 엘리아데는 이것을 ‘영원순환의 신화’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신화와 제의를 통해 신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세계의 창조적인 힘을 느낄 수 있다.<sup>158)</sup> 여성 역사학자들에 의해 생태여성주의자로 부각된 힐데가르트(Hildegard)는 서구의 여성운동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다.<sup>159)</sup> 그녀에 의하면 신성은 자연에서 체험하는 것으로, 인간이 가진 신성한 영성은 생명 그 자체의 풍요로움을 긍정하는 것이다.

또한 여신의 대해 불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신은 삼위일체로서 처녀, 어머니, 할머니였다. 영원성을 지닌 위대한 여신은 여성다움의 모든 측면들을 상징한다. (...) 그녀는 다수인 동시에 유일한 신이었다. 그녀는 무수한 이름을 가진 위대한 생명이 그녀의 몸에서 나오고 그녀에게로 돌아간다. 그녀는 자연의 실체이자 창조자이며 생명을 유지하고 파괴하는 자였다. 그녀는 주기에 따라 변하는 달과 같으며 계절이 지구와 같았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그녀의 신성한 본질의 일부를 나누어 가졌다는 의미에서 그녀의 자식이었다.<sup>160)</sup>

여신은 초승달과 보름달, 처녀와 어머니, 그리고 지혜로운 노파이다. 이러한 심상은 생성과 소멸을 주관하는 여신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잘못하면 자연의 순환 원리를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원리나 전쟁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데도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연은 서로 북돋우며 사는 생태계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연의 시스템은 점점 더 다양해지려는 경향을 가지고 전체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생명의 주기를 갖는 모

157) 윌킨슨, 필립 외, 『신화의 세계』, 김정희 옮김, 21세기북스, 2009, 17쪽.

158) 윌킨슨, 필립 외, 위의 책, 20쪽.

159) 김재희, 『깨어나는 여신』, 49-50쪽 참조. 힐데가르트(Hildegard, 1098~1179)는 독일의 라인 강변 계곡, 조그만 마을 빙엔(Bingen)의 수도원에서 살았던 수녀로, 예언자, 작곡가, 예술가, 개혁가, 그리고 시인이며 과학자였다. 그녀가 살았던 12세기 유럽에는 특별한 여성운동이 크게 일어 명석하고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가 많았다. 안트베르펜의 하드비치, 막테부르크의 메히틸드, 쇼나우의 엘리자베스 등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신비적 목상기도의 흐름이 조성되었다. 이들이 바로 지혜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여성들이었다.

160) 불린, 진 시노다, 『우리 속에 있는 지혜의 여신들』, 54쪽. 짐부타스(Marija Gimbutas)는 『여신의 문명』에서 여신을 숭배하던 문명을 ‘고대유럽(Old Europe)’으로 명명하면서, 이 문명이 번성했다가 멸망한 과정을 기록했다. 물론 그녀는 이 문명이 유럽의 첫 문명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가부장제 확립 이전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5천 년, 많게는 2만 5천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크레타에서 켈트족의 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 여신 숭배는 널리 퍼져 있었다. 고대 유적지에서 나온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이 문명은 계층이 분화되지 않은 만민평등 사회였다.

든 존재양식은 출생, 성장, 죽음이라는 순환적 리듬으로 끝없이 재생된다. 자연의 순환원리는 여신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여신은 생명의 아름다움과 감수성을 일깨워주는 자연의 법칙을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짐부타스(Marija Gimbutas)는 출생과 성장, 죽음이라는 순환의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생명의 죽음을 섭취합니다. 죽음을 먹고 사는 거지요. 죽음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르지만, 모든 생명과 죽음은 여신의 모습이에요 죽음을 모두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도 없는 거지요. (...) 죽음의 미학을 알아야 해요. 우리의 여신은 이 아름다운 죽음과 생명의 연속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죽음과 탄생, 성장과 소멸을 통해 그녀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이는 지극한 신성이고 거룩함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높이 받들어야 할 대상은 바로 이거예요. 삶과 죽음이 돌고 도는 순환 원리, 우리 생명의 한 가운데서 활동하는 여신의 원리 말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sup>161)</sup>

짐부타스에 의하면 여신은 삼신할머니고 흙이고 자연이고 인간의 근원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 안에는 물질과 생명과 영혼, 우주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다. 그 작용이 모두 여신의 활동이다. 따라서 소우주인 자신의 근원을 찾고 자기 안의 신성과 일치할 때 우리는 인류의 시원문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여성 혹은 지혜로운 할머니의 원형은 영성의 내면적 성장을 설명하는 포괄적 개념이기도 하다. 할머니 원형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성찰하라고 우리를 초대한다. 그러나 이 원형은 우리가 의미 있는 대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 전반을 아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남성일반에게는 하찮은 것으로 취급받았다. 지혜로운 여신은 우리를 의미의 내면세계로 이끌며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자애로우면서도 단호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필요하다면 변화가 요구될 때 사나워질 수도 있도록 해준다.

여성의 지혜가 다양성을 담고 있듯이 지혜로운 여성의 원형도 여러 가지이다. 볼린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61) 김재희, 『깨어나는 여신』, 정신세계사, 2000, 18-19쪽 재인용.

메티스의 지혜는 실용적이어서 지성과 기술의 숙달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소피아의 지혜는 신비로운 통찰을 경험하고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헤카테의 직관적 지혜는 정신적인 각성으로 더 강해지고 관찰을 통해 날카로워진다. 헤스티아는 외적 조화를 가능케 하는 내적 평온함이자 현명함의 실재다. 헤스티아는 집을 가정으로 만들고 평범한 장소를 성소로 만들며 이방인들이 한 공동체 아래 결합할 수 있도록 조용히 돕는다.<sup>162)</sup>

여성들의 지혜는 여성운동을 하던 세대가 나이를 먹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처럼 부각되었지만, 이 지혜와의 관계는 아주 오래된 것이다. 지혜로운 여성의 원형과 할머니 여신이 오랜 세월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일깨우면 그들은 다시 우리를 통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치유 공동체, 유기농산물 협동조합, 공연예술 행사, 그리고 칩코(Chipko) 운동 등 새로운 정치적 저항 형태로 실천적인 운동으로 이끌어 주었다. 또한 여성운동가들은 지구과피와 여성착취 사이의 관련성을 말해 주는 시나 의례들을 통해서 여성주의와 사회변화 운동 모두를 점차적으로 되살렸다.

### 3) 지구공동체 연결을 위한 의사소통

과학기술과 결합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중심의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지배자가 되어 생명의 연결망을 끊어놓았다. 그러나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조차 과학의 힘과 가부장제의 권위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힘에 의한 질서는 또 다른 폭력을 낳으며 지배의 악순환 구조를 대물림하였다. 게다가 가부장제 역사에서 언어의 폭력성은 육체적 폭력성보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쉽게 변화시키기 어렵다. 공동체 연결을 위한 의사소통은 모든 자연의 생명유기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소통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가부장제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의 두려움을 돌보는 것을 시작으로 인간의 마음 안의 폭력성을 가라앉히고 따스한 본성과 연결하는 것이다. 나아가 개인의 일상적인 삶과 사회

162) 볼린, 진 시노다, 『우리 속에 있는 지혜의 여신들』, 이경미 옮김, 또하나의문화, 2003, 38쪽.



의 통합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주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관계와 소통이다. 이러한 관계와 소통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2007년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 비폭력대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생태여성주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인간과 인간 사이를 깊게 연결하려는 의도를 갖는 비폭력대화야말로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되살릴 수 있다. 비폭력대화는 지배체제의 언어를 파트너체제의 언어로 대체하는 훈련을 통해 인간 내면의 힘을 키우고, 인간 간의 성숙한 관계를 형성해하는 소통방법을 제시한다. 실제로 정부, 학교, 사회단체, 교정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단절된 인간관계를 연결하고 있다.

비폭력대화는 인간존재로서 서로에 대한 배려, 존중, 상호의존성, 사랑에 기초한 인식, 믿음이 바탕이 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추구한다. 비폭력대화의 모델은 갈등을 피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갈등이 참다운 인간관계의 배움을 위한 하나의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다. 가부장제 언어의 초점이 이기고 지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면, 비폭력대화는 갈등당사자 모두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감정과 욕구에 근거하여 자신과의 일치성, 자기 돌보기, 적 이미지(the enemy image) 과정의 해체, 화해와 치유를 향상시킬 수 있다.

생태여성주의에서 공동체 연결을 위한 의사소통은 첫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연민의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서로가 쌓아올린 불신의 벽을 넘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으로 상대방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셋째,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든다. 넷째, 자신과 타인에게 파괴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즐거움을 알린다. 즉, 생태여성주의는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존재자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관계와 소통을 지향한다. 그러한 생태여성주의의 공동체 연결을 위한 의사소통은 자연스럽게 생명평화운동과 맥락을 같이하고 연대하게 된다.

결국 관계와 소통을 통해 지구공동체를 연결하려는 목적은 서로 비난하고 싸우기보다는 다름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려는 것이다. 이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는 일이기도 하다. 때문에 공동체는 다름

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듣기와 이해하기,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동체 연결을 위한 의사소통은 인간 간의 연결과 인간과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상호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연 속의 일부분이므로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는 파괴된 인간과 자연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V. 결 론

생태여성주의는 여성운동의 기초 위에 세워진 생태이론과 실천의 총체이다. 생태여성주의는 지금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려면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피해당사자의 경험에서 나온 여성주의 시각으로 환경파괴에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초기 여성운동은 여성들의 자발적인 의식화 조직이나 자매애를 기반으로 한 연대 및 다양성 존중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왔고 이는 생태여성운동에 큰 기여를 했다.

생태여성주의는 1970년대 자유주의 여성주의 운동의 좌절, 과학기술과 개발에 대한 회의, 인간중심의 산업주의에 대한 심층생태주의적 비판, 경제적 제국주의에 대한 제3세계의 비판, 반핵운동 등을 계기로 태동했다. 여러 유형의 여성주의자들 사이에 자연과 여성의 연관성에 대해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다. 하지만 생태여성주의는 기본적으로 여성과 자연을 자본주의 가부장적 남성의 착취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한다. 생태여성주의는 인류를 비롯한 자연생명이 상호협력과 보살핌을 통하여 유지된다는 세계관과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온전함을 옹호한다. 그리고 그들은 문화상대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전 세계 여성들 간, 세대 간, 여성과 남성 간, 그리고 인간과 다른 생명체 간의 다양성과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대안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자급적 관점(subsistence perspective)을 강조한다.

생태여성주의는 가부장제 기획물인 과학기술에 의해 자연, 여성, 제3세계의 종속이 수반되었고, 그들의 온전한 생산성과 힘 그리고 잠재력이 보편적 이익이라는 자본주의 명분에 의해 빼앗기고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은 자연과 여성의 생산성을 말살하는 도구를 만들어내어 재생력의 터전으로서의 종자와 여성의 육체를 식민지화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이 생물적 재생산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한 가치가 무가치한 것으로, 생명의 창조성은 수동성으로, 여성의 노동은 비노동으로, 자연은 수동적 존재로, 착취와 파괴는 생산으로 둔갑한다.

과학기술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통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보편적

복지향상을 이루는 데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도구화한 자본주의 식민권력은 자연과 여성, 제3세계를 영구적인 식민지로 점유하고 지역적인 ‘자연경제’를 파괴하며 빈곤과 수탈을 재생산할 뿐이다. 개발과 성장은 국민총생산(GDP)과 같은 재정지표로만 강조되기 때문에 자연·여성·어린이의 공헌은 무시되고, 개발의 부정적인 영향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는다. 게다가 국민총생산 지표들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만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얼마나 자연 파괴적인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자급경제를 다루지 못하거나 개발로 인한 자급경제의 파괴로 생기는 빈곤을 계산에 넣지 못한다.

지구환경 위기의 또 하나의 원인은 가부장제에 바탕을 둔 가치위계적·가치이원주의적 지배논리이다. 이는 성차별적 특징을 가진 지배논리로 억압의 틀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자연지배주의와 연결된다. 따라서 여성과 자연에 대한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론과 실천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여성주의적 연구방법론이 필요하다. 첫째,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의식적 편향이 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자와 대상 간의 관계를 ‘아래로부터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여성해방과 자연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쟁해야 한다. 넷째, 위기의 경험을 변화시키는 것이 과학적 탐구의 출발점이다. 다섯째, 연구과정은 연구주체와 대상자 모두에게 의식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여성의 집단적 의식화 과정은 여성의 개인적·사회적 역사에 관한 연구와 병행해야 한다. 일곱째,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집단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덟째, 과학기술의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

여성주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신체와 삶에 대한 ‘자기결정’이다. 이것은 자율성을 지닌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운동, 여성을 배려하는 건강관리운동, 성차별로 인한 여아낙태 반대운동 등을 통해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으며, 남성들에 의해 점거된 소유물로 취급되고 있다. 여성들에게 자율적 자기결정권이란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자기결정’이라는 이름 아래 자궁을 빌려주는 대리모, 난자 판매, 낙태 등을 통해 살아 있는 관계, 공생관계들이 더 이상 해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여성의 신체가 미래 생명공학산업에

쓰일 원료제공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문제와 여성차별문제가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남성이 주도하는 경제영역(원료채취 및 생산)과 정치영역(과학적 개발 정책)에서 파괴된 환경오염의 결과들을 질병, 기형아 출산 등 여성들의 몸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태여성주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오래된 여성들의 지혜에서 찾는다. 여성들에게는 오랜 세월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조정해온 세대들의 경험이 있다. 비록 이것은 자본주의 가부장사회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었지만, 오래된 여성들의 지혜는 축적된 경험에서 오는 것으로 마땅히 인정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은 여성들의 집단 무의식의 원형으로, 같은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그것들을 통합하여 깊이 있는 통찰을 하는 것이다.

생태여성주의는 신화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분리된 관점을 따로 또 같이 포용할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해왔다. 여신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여성들은 여신의 상징적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문화운동을 하였다. 여신운동은 복합적인 심상과 상징적 언급으로 여신의 부활이 신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기계적인 합리성과 이성 중심의 사고만으로 환경문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고 여린 생명존재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생태적 감수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태여성주의는 지구환경의 총체적 위기에 대해 인간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지, 현대문명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나 생명체가 느끼는 대로 느낄 줄 아는 공감능력이 있고, 공간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아파하고 분노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몸과 언어로 억압되어왔을 뿐이다. 여성주의 운동은 자매애를 기반으로 여성의 의식향상과 역량강화를 지속해 왔다. 그리고 지배체제의 언어를 바꾸기 위한 비폭력적 의사소통 훈련도 거듭하고 있다. 비폭력 의사소통은 가부장제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의 두려움을 돌보는 것을 시작으로 인간의 마음 안의 폭력성을 가라앉히고 본래적인 따스한 본성과 연결하는 것이다. 인간은 존재자로서 서로에 대한 배려, 존중, 상호의존성, 사랑에 기초한 인식, 믿음이 바탕이 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추구한다. 생태여성주의는 결국 인간 간의 연결과 인간과 자연과의 연결을 되살려 상호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자연 속의 일부분임을

일깨워 자연의 생명력 대한 소중함을 다시 가르쳐줄 것이다.

여성문제와 생태문제에 대한 이론들은 그것이 실천적 전망 속에서 구체화될 때야만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아이들의 양육은 더 이상 여성들만이 책임이 아니며 인간 모두의 책임이다. 또한 인간 상호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변화에 여성과 남성 모두가 참여하여 지구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개발과 파괴의 권리 근거가 아니라 자연세계에 대한 책임의식에 근거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서로 다른 방식의 이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자연의 종(種)들과 인간들의 사회적 역사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 역사이론이 필요하다. 또한 변증법적 이성으로 사고하는 인간종(種)의 입장에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의지적으로 자신의 감성과 지성을 온전히 사용해야 한다. 바로 그 단계에서 직관적이고 과학적인, 신비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인식 방법에 의해서 신성한 느낌과 더불어 인간의 새로운 삶의 형태가 합쳐질 것이다. 그 순간 여성들은 주체적 삶으로서 역사를 인식할 것이고 고전적인 이원주의를 지양(止揚)하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

생태여성주의는 지구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명의 그물을 이루는 못 생명들의 풍부한 생명력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인간이 불가피하게 세계 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내면의 본성적인 연민을 인식하여 나 자신과 연결하고, 다시 나와 다른 인간과 연결하고, 마침내 나와 자연과 연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생태여성주의는 역사와 단절된, 세대 간에 단절되었던 여성들의 오랜 지혜와 다시 연결됨으로써 환경위기라는 실존적 문제를 극복하고 현대사회가 인간에게 드리운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할 것이다. 오늘날의 인간과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제라도 우리는 내면의 상호성과 연결성의 원리를 자각해야 한다. 이는 인간으로서 주체적 책임의식을 갖고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을 다할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단행본

- 강수영 외,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평가와 전망』, 여성과사회, 1996.
- 김민예숙 외,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역사, 실제, 방법론』, 한울아카데미, 2005.
- 김재희, 『깨어나는 여신』, 정신세계사, 2000.
- 다이아몬드, 아이린 외, 『다시 꾸며보는 세상』, 정현경·황혜숙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 드라이제크, 존 S., 지음, 『지구환경정치학의 담론』, 정승진 옮김, 에코리브르, 2005.
- 류터, 로즈마리, 『새 여성 새 세계』, 손승희 옮김, 현대사상사, 1980.
- 리치, 아드리엔느,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김인성 옮김, 평민사, 1995.
- 머천트, 캐롤린, 『자연의 죽음』, 전규찬 외 옮김, 미토, 2005.
-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2006.
- 미즈, 마리아 외, 『에코페미니즘』, 손덕수·이난아 옮김, 창작과비평사, 2000.
- ,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꿈지모 옮김, 갈무리, 2013.
- 미즈, 마리아,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옮김, 동연, 2014년.
- , 「전지구적 생태여성론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가?」, 『여성과 사회』 7호, 한국여성연구회 편, 창작과비평사, 1996.
- 방영준, 『공동체 생명 가치』, 개미, 2011.
- 보봐르, 시몬느 드, 『제2의 성』, 이희영 옮김, 동서문화사, 2014.
- 볼린, 진 시노다, 『우리속에 있는 지혜의 여신들』, 이경미 옮김, 또하나의문화, 2003.
- 북친, 머레이, 『사회 생태론의 철학』, 문순홍 옮김, 솔출판사, 1997.
- 브라이도티, 로지 외,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한국여성NGO 옮김, 나라사랑, 1995.
- 서영표, 『사회주의 녹색을 만나다』, 한울, 2010.
- 와츠맨, 주디, 『페미니즘과 기술』, 조주현 옮김, 당대, 2001.
- 윌킨슨, 필립 외, 『신화의 세계』, 김정희 옮김, 21세기북스, 2009.

- 재거, 앨리슨 M. 외, 『여성주의 철학 1』, 한국여성철학회 옮김, 서광사, 2005.  
 \_\_\_\_\_, 『여성주의 철학 2』, 한국여성철학회 옮김, 서광사, 2005.
- 정유성, 『따로와 끼리-남성 지배문화 벗기기』, 책세상, 2001.
- 조성숙, 『‘어머니’라는 이데올로기』, 한울아카데미, 2002.
- 조한혜정,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또하나의문화, 1998.
- 지율, 『초록의 공명』, 삼인, 2005.
- 러브록, 제임스, 『가이아』, 홍유희 옮김, 범양출판부, 1990.
- 하딩, 샌드라 지음, 『누구의 과학이고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 옮김, 2010.
- 해러웨이, 다나 J., 『검손한 목격자』, 민경숙 옮김, 갈무리, 2007.
- 해러웨이, 다나 J., 『한 장의 잎사귀처럼』, 민경숙 옮김, 갈무리, 2005.
- (사)한국여성연구소, 『새여성학강의』, 동녘, 2009.

## 국내 논문

- 김명숙, 「생협운동에 대한 생태여성주의적 이해」,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석사  
 논문, 2013.
- 김성은, 「생태학적 영성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김정희, 「생명여성주의의 존재론적 탐구: 반야불교와 노자의 ‘마음’ 개념에 기초한 신인  
 간형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7.
- 김효정,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을 통해 본 여성농민의 토착지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논문, 2010.
- 이귀우, 「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 『새한영어영문학』 제43권 1호, 2001.
- 이희영 번역, 「2012년 ‘리우+20 여성 우수 실천상」, 여성환경연대 자료집, 2012.
- 조은수, 「지울스님의 생태운동과 에코페미니즘」, 『철학사상』 41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  
 구소, 2011.
- 조주현, 「페미니즘과 과학기술: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해러웨이 읽기」, 『한국여성  
 학』 제14권 2호, 한국여성학회, 1998.
- 홍은선,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주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논문, 2013.
- 황선애, 「생태여성주의와 생태여성주의 문학비평-문제점과 전망」, *Women's Studies  
 Forum* 제66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4.



## 외국어 문헌

- Biehl, Janet, *Finding Our Way. Rethinking Ecofeminist Politics*, Black Rose Books, 1991.
- Devall. Bill & Sessions, George, *Deep Ecology*, UT: Gibbs Smith, 2007.
- Gray, Elizabeth Dobson, *Green Paradise Lost : Re-mything Genesis*, Wellesley, Mass.:Roundtable Press, 1981.
- Griffin, Susan, *The Death of Nature. The Roaring Inside Her*, Sierra Club Books, 1978.
- Plumwood, Val, *Feminism and Mastery of Nature*, London: Routledge, 1993.
- Sturgeon, Noel, *Ecofeminist Natures: Race, Gender, Feminist Theory, And Political Action*, New York: Routledge, 1997.
- Warren, Karen J., “Feminism and Ecology, Making Connections”, *Environmental Ethics*, 9(1), 1987.
- Zimmerman, Michel E. ed., *Environmental Philosophy: from animal rights to radical-ecology*, Prentice Hall, 2005.

## Abstract

# A Critical Study of Ecofeminism

Kang, Bok Hee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Ecofeminism is an ecological philosophy based on feminism movement. Feminism has been emphasized through various forms of women's human right movement such as stopping violence against women, movement for the gender equality, movement against abortion, and women's liberation movement. Violence against women, however, has continued, only changing its forms and structures more subtle and complicated. Moreover, violence against and exploitation of women are not different from exploitation of the nature and the third world. On this background, this thesis focuses on the ecofeminism as a holistic solution of global environmental crisis and social problems.

Though there are as many types of ecofeminism as its theorists, they all share the idea that capitalism combined with modern scientific technology is the cause of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Therefore, ecofeminism insists on the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eople and with the nature to solve the problems of ecology and the

gender equality together.

The theories on the feminism and ecology can have their real value only when they are specified with the practical hope. Ecofeminism requires a theory that integrates the history of the nature and the humanbeings. The philosophy for women should not be such as describing the relationships of the abstract concepts, but be something to shed light on the essence of life through approach to women's real life and efforts to change it. The reason why ecofeminism talks about the goddess and spirituality is not to flee from the pain of the world, but to recover the meaning of life through it. Therefore, the ecofeminism is willing to overcome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by the wisdom of women who have overcome the crisis of the life.

The wisdom of women comes from their own experiences. It requires deep connection to the life and realization of the mutuality and interconnectedness. By reconnecting with the old wisdom of women, we can overcome the despair and fear that are brought about by the environmental crisis and modern society. Women will lead the movement to recover the sustainable ecology of the earth, as they did in the past.

Ecofeminism should develop a new type of understanding on the relationship of the humans and the nature. It should be a new method of communication which recognizes the value of the diversity of life forms and culture. In this regard, Efforts to change the language of ruling system to a nonviolent language are needed. Nonviolent language can care for the fear under the patriarchy, soothe down the violence in the human mind, and help us reconnect with the original warm heart. It helps us reconnect with ourselves, with other people, and with the nature.

Humans are free inherently. This freedom does not mean to freely

destroy the environment, but to be free with responsibility on the nature. Humans should do its respons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course of new change, and to connect with the nature, in order to sustain its life as a Being-in-the-world. For this, we should understand the integrated history of the nature and the humans, and be able to use the whole of our emotions and intelligence. We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recovering the sustainable ecology of the earth.